

# 「북원문화권의 정체성과 원주지역 불교문화연구」

- ▶ 일 시 : 2004년 2월 3일(화) 13:30-17:40
- ▶ 장 소 : 원주문화원 공연장
- ▶ 주 관 : 강원발전연구원
- ▶ 주 최 : 강원도 · 원주시
- ▶ 후 원 : KBS원주방송국, 원주MBC, GTB강원민방,  
YBN영서방송,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강원발전연구원

# 「북원문화권의 정체성과 원주지역 불교문화연구」

- ▶ 일 시 : 2004년 2월 3일(화) 13:30-17:40
- ▶ 장 소 : 원주문화원 공연장
- ▶ 주 관 : 강원발전연구원
- ▶ 주 최 : 강원도 · 원주시
- ▶ 후 원 : KBS원주방송국, 원주MBC, GTB강원민방,  
YBN영서방송,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강원발전연구원

# 목 차

---

기조연설 : 북원문화권과 불교정체성 .....	1
- 강연자 : 박형진(전원주문화원장)	
제1주제 : 신라 · 고려전기 북원문화권 불교의 성격	7
- 발표자 : 김혜완(강원대 · 연세대 강사)	
제2주제 원주지역의 고려시대 불교조각	31
- 발표자 : 최성은(덕성여대 교수)	
제3주제 : 원주법천사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	43
- 발표자 : 지현병 · 윤석인(강원문화재연구소)	
제4주제 : 북원문화권의 정체성과 기본구상 .....	63
- 발표자 :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행사일정

■ 13:30~14:00	등 록
■ 14:00~14:30	국민의례 개 회 사 축 사
■ 14:30~14:50	기조연설 : 복원문화권과 불교정체성 - 강연자 : 박형진(전원주문화원장)
■ 15:00~15:30	제1주제 : 신라 · 고려전기 복원문화권 불교의 성격 - 사회자 : 김인호(상지대 교수) - 발표자 : 김혜완(강원대 · 연세대 강사) - 토론자 : 김홍삼(강원대 강사)
■ 15:30~16:00	제2주제 : 원주지역의 고려시대 불교조각 - 사회자 : 김인호(상지대 교수) - 발표자 : 최성은(덕성여대 교수) - 토론자 : 최웅천(국립춘천박물관장)
■ 16:00~16:10	휴 식
■ 16:10~16:40	제3주제 : 원주법천사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 사회자 : 김인호(상지대 교수) - 발표자 : 지현병 · 윤석인(강원문화재연구소) - 토론자 : 정재규(충북문화재 감정위원)
■ 16:40~17:10	제4주제 : 복원문화권의 정체성과 기본구상 - 사회자 : 김인호(상지대 교수) - 발표자 :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김기훈(원주시의회 의원)
■ 17:10~17:40	종 합 토 론
■ 17:40	. 폐 회



기조연설

# 北原文化圈과 原州佛教의 正體性

朴 亨 鎭

(전 원주문화원장)

# 北原文化圈과 原州佛教의 正體性

朴亨鎭 \*

原州는 三韓이 亂立時 地政學的으로 영토확장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接境地에 속했던 관계로 百濟는 물론 高句麗·統一新羅에 이르기까지 고루 예속되면서 술한 애환을 겪었다. 특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원주에는 北原京이 설치되었는데 그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의의를 反芻해 볼만하다. 신라의 수도는 慶州로써 자체의 小國家일 때의 통치수단이나 방법으로는 大國家로 형성된 통일국가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分權 통치수단이 필요했다고 할 것이다. 과학문명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그 시대상황으로는 王權統治의 이념 및 분위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거나 명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分割委任하는 방안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전국을 九州五小京으로 편제할 때 원주를 北原小京으로 설치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강 이남에 四小京을 두고 한강 이북에는 오직 원주에 小京을 두었으니 이를 深甚히 살펴볼진대 다른 小京은 백제·신라 영토에 속해 있던 것이고, 원주만이 고구려에 속해 있던 平原郡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히 현재의 강원도는 물론 關西·關北 즉 평안도와 함경도까지를 효율적으로 통치 관리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羅唐聯合軍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外勢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옛 고구려의 그 넓은 국토를 잃어버린 格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해야 된다는 의식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더더욱 北原文化의 재조명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될 의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負荷된 숙명이기도 하다.

또한 원주는 王朝變革期에는 그 활동무대가 되었으니 신라가 國運을 다할 때 敬順王이 원주 貴來 黃山寺에 거처하였으며, 고려가 멸망하니 恭讓王이 원주 遜谷으로 낙향했다. 특히 신라의 運이 장차 그 命을 다할 때 北原京인 원주의 鵠原山城에는 梁吉이 陣을 치고 인근 30여 개 고을을 장악하고 장차 大業을 較計할 때 弓裔가 그 手下에 들어와 石南寺에서 군사를 일으켜 인근 고을을 점령하고 급기야 鐵原에서 고구려를 계승하여 國號를 고려로 한 국가를 세웠다. 물론 國是는 옛 고구려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복원경은 삼한을 통일하기 위한 발상지로 기록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

\* 전 원주문화원장

의 근원과 영구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지금 중국은 현재 6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중국의 역사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그들 영토내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국가의 흥망을 소수민족의 한때 역할로 貶下하여 정치적 의도로 역사를 變造해가고 있다. 물론 우리의 옛 고구려나 渤海의 엄연한 역사를 부정함을 말할 나위도 없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자칫하면 민족의 뿌리와 국가의 형성근원조차 말살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의 천년만년의 大計를 위해서라도 大悟覺醒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조류에 따라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전쟁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강대국에 휩싸여 있는 남북의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하루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공동대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통일 후에 우리의 땅인 옛 고구려 땅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분명하다.

북원정에 삼한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신라시대 전국 寺刹・庵子중에서 제일 높은 해발 1,150m에 창건된 雉岳山下 上院寺가 있다. 이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木板碑에는 신라말 도선선사가 唐에 들어가 일행법사를 뵈옵고 地理의 妙法을 배워 東으로 오는 날에 東方山水圖를 드리니 일행법사가 동방산수도를 보고 圈點 3,800개를 찍고 그곳에 사찰을 세워 地脈을 눌러 탑을 세우면 전쟁이 사그라 들고 三韓이 통합된다 이르렀다. 도선선사가 돌아와서 모든 곳에 탑을 세워 國脈을 진압하고 地勢를 보충하니 이 本寺의 땅은 동방제일의 장소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원래는 赤岳山이었는데 報恩의 땅에 얹힌 佛教說話에 따라 평지(雉)자를 넣어 雉岳山이라 호칭한 것만 보아도 因果應報를 강조하고 三韓和合을 위하여 얹혀진 전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두가 통일을 위한 염원과 실행을 위하여 一心으로 凝結하려 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원문화의 맥을 이곳에서 우선 찾아야겠다는 것이다.

또한 石南寺에서 출발한 弓裔 군사가 인근 고을을 차례로 접수하고 眞聖女王 8년(894)에 溟州(江陵)에 쳐들어갔는데 上院寺에 많은 衆生들이 기원한 善業으로인지 서로 피 흘리지 않고 弓裔軍에 오히려 합류되어 철원에서 결국 江原王國을 세웠으니 江原人 모두의 승리요, 고구려 영토시대에 얹혀진 血盟를 증거하였으리라. 이렇게 볼 때 옛 고구려 북원사업은 북원문화권은 물론 강원인 모두의 과업이기도 하다. 또한 북원문화권의 범위는 高麗史에 보면 北原京의 권역은 寧越郡(고구려 奈生郡)・堤州(고구려 奈吐郡 : 지금의 제천시)・平昌郡(고구려 郁烏縣)・丹山縣(고구려 赤山縣)・永春縣(고구려 乙阿旦縣)・酒泉縣(고구려 酒淵縣)・黃驪縣(고구려 骨乃斤縣 : 지금의 여주군)이 모두 원주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북원정의 권역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치로 볼 때 北原은 南漢江과 蟾江을 낀 한반도의 중앙지역으로 불과 백리 남쪽에 세워진 中央塔을 두고 있으니 내륙문화의 중심지이다.

남한강 유역 法泉里에서 발견된 古墳 및 많은 문화유적유물 등에서 先史時代・原三國・後三國・高麗時代의 생활상이나 문화 등을 조명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법천리 일대가 다분히 문화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발굴한다면 문화의 보고가 드러날 것이다. 복원경의 後光은 조선시대 江原監營 500년 역사에서 충분히 증거된다. 정치・경제・문화교육의 江原首府로써 역할이 그 빛을 더욱 선명케 하였다. 감원감영 복원을 위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基層調査를 해보니 고려시대는 물론 후삼국시대・원삼국시대를 위시하여 이전시대까지도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따라서 심층성 있는 조사연구를 거듭한다면 무수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치악산 역시 문화의 寶庫로써 600여 개의 寺庵이 있었다고 전해지는가 하면 鵠原山城에서의 외래 침략으로 인한 국가 수호의 방어역할 및 인물로는 元冲甲・元天錫元昊・金梯甲・元豪・鄭宗榮・韓百謙 등 文武間에 많은 人傑을 배출한 靈地임을 나열할 수 있다. 특히 물류중심지로서 國倉인 興元倉 및 北倉 등은 운반수단이 河川이나 江流船舶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그 기능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원주형상・영월・정선・평창 등의 稅穀이나 木材藥材 등 제반물품의 운송은 남한강을 이용하기 때문에 富論 興元倉은 每日이 장날이었고 興元倉 判官이란 직책은 대단한 위치였다. 생활의 필수품인 소금을 서울에서 역으로 운송하여 각지로 분배되니 北原文化는 자연히 各地人의 離合集散으로 형성되게 마련한 즉 원주는 뒷세가 없는 곳이라고 하고 타관을 타지 않는다고 전해오면서 지금도 그대로 그 문화는 계승되고 있다.

이제 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삼국시대・고려시대까지의 국가통치 이념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600년 전 그간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우리의 언어・관습까지도 불교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과학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草根木皮로 생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趙巖 선생이 일본으로부터 고구마 종자를 가져온 것이 불과 200년 전이며, 감자는 그후에 들어왔으니 식량부족은 자연현상이었고,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 목화씨를 북 땅에 숨겨왔다 하니 이전에는 무엇으로 옷감을 만들었는지 전문학자 교수나 알법한 일이다.

또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고는 하나 근 1,000회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으니 그 艱難辛苦는 말할 것 없고, 恨 맺혀 살아온 민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稅穀은 늘어가고 城을 쌓기 위해 賦役은 限量없고 참으로 고달픈 생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의지할 것은 土俗宗教나 佛教밖에 없었으니 그래도 희망을 걸어 보기도 하며 安心立命하기 위하여 불교는 敎理自體가 安心處일 수 있고 自立宗教이기 때문에 자력 성취할 수밖에 없다. 自利利他・一切唯心造・見性成佛・諸行無常・生死一如 등의 생각으로 자기를 유지하였기에 생활의 한 축으로

지탱했다. 장래 부처님 즉, 미륵부처님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역경을 이겨낼 힘을 저축할 수가 있었다.

불교가 國敎로 되면서 王師·國師로 추앙을 받으면서 國事に 諮問까지 했으니 통일신라시대로부터 고려시대의 불교는 황금기라 할 수 있다. 이미 上院寺의 창건과 보은의 설화에서 밝혔지만 특히 남한강 유역의 法泉寺·居頓寺·興法寺를 대표적으로 관찰해 보면, 當代의 극치를 이룬 사찰이었음이 증명된다. 법천사는 문자 그대로 法(眞理)의 泉(샘)이라는 뜻으로 2만여 평에 달하는 거대한 伽藍이며, 그 유명한 智光國師가 入寂하신 道場으로 국보 제59호인 智光國師玄妙塔碑와 서울 경복궁 정원에 있는 국보 제101호인 智光國師玄妙塔이 있다. 이 두 國寶는 그야말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예술품이다. 거둔사의 보물 제78호인 圓空國師勝妙塔碑가 있고, 보물 제190호인 圓空國師勝妙塔(현재 경복궁 경내에 위치)이 외롭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흥법사에 있던 보물 제463호인 眞空大師 塔碑의 碑身(현재 경복궁 수장고에 보관)은 고려 태조 王建의 王師이기에 친히 태조가 碑文을 撰하고 당시의 명필인 崔光胤이 唐太宗의 글씨를 集字하여 세웠다. 이는 유일한 왕의 撰文碑銘이기에 역사문화적 가치가 重厚하다.

다만 아쉽고 원망스러운 것은 원주문화원에서는 1995년에 <타향살이 80년의 원주문화재>라는 책자를 내고 시민의 환수서명을 받아 정부에 원위치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에 계속하여 문화원에서는 환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정기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전국의 귀중한 문화재를 收奪해 갔는데, 강원도에서는 9점을 구 중앙청 자리로 옮겼는데 그 가운데 강릉 1점, 양양 1점이고 나머지 7점은 모두 원주 것이니 불교문화유적지로 원주가 아니 北原京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어떠했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원주가 불교 중흥지로 각광을 받았고 또한 많은 인재를 양성했음을 알 수 있다. 거둔사지에 가면 거대한 說法場을 확연히 알 수 있고 回廊이 양옆으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교육기관으로서 사찰에서 전력을 경주하던 당시의 역할을 익히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연구와 확인을 통해 북원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함이 중요과제라고 確言한다.

제1주제

# 신라 · 고려전기 북원문화권 불교의 성격

김 혜 완

(강원대 · 연세대 강사)

1. 머리말
2. 원주지역의 영역변화와 범위
3. 비마라사와 화엄종
4. 거둔사(안락사), 흥법사와 선종
5. 거둔사와 법안, 천태종
6. 법천사와 법상종
7. 맺음말

# 신라 · 고려전기 북원문화권 불교의 성격

김 혜 완 \*

## 1. 머리말

원주는 한반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서로 점령지가 되었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5소경의 하나로 정해짐에 따라 신라 왕경의 문화가 이수되어 이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원주는 북쪽으로 남한강이 지나가고 그 지류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 내륙의 도시이지만 하천을 이용한 문화 전파가 빠르고 하천으로 연결된 지역과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가능하여 고려 이후 원주의 불교문화는 중앙의 것을 민첩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원주에는 신라 하대 이래 고려 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를 대표하는 각 종단의 중심역할을 한 사찰이 자리를 잡게 되어 가히 고려 전반기까지의 불교사에서 원주권의 불교는 그 중심적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원주는 신라의 북부문화권의 중심지였고 신라말 이래 양길과 궁예와 같은 세력가의 각축장이 되었고 왕건과 견훤의 세력도 충돌하여 급박한 정세 속에서 각 세력들은 자신들의 안정적 세력확보를 위해 불교종단과 신도로서의 일반민들을 포용하는 지원을 하였고 그들의 불교신앙을 장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민들도 마음의 안정과 보다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희망과 평안한 내세를 위해 불교신앙을 깊이 믿고 있었다.

원주에는 이러한 불교종단과 일반민들의 열렬한 신앙을 바탕으로 그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불교미술품도 많이 조성하였고 그의 작품성도 출중하여 국립박물관에 있는 5구의 원주철불과 山澗寺철불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을 합하여 7구의 철불이 있고, 흥법사 거둔사 법천사 등에는 각 사원을 대표하는 승려의 부도와 부도탑비가 있고 주변의 알려지지 않은 사찰에도 석조미륵불 등 불상과 석탑들이 산재하고 있다.<sup>1)</sup> 그 중 法泉寺 智光國師 海麟의 부도와 부도탑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작품인 것이다. 이는 그 만큼 원주지역의 불교문화가 융성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시 국가적인 지원 또는 이 지역 단위의 경제적 지원속에서 고도의 신앙심과 문화역량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 강원대 · 연세대 강사

1) 李仁在, 2000, 「나말여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197-199쪽에는 원주지역의 사찰(12)과 사지(26), 불상(17), 석탑 및 부도 23개, 부도탑비 4, 당간지주 등 기타 7개가 조사되어 있다.

한편 원주에는 지금은 폐사가 되었지만 毗摩羅寺, 興法寺, 居頓寺, 法泉寺 등 그 시대를 대표할 만큼 큰 사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재하였던 승려 즉 忠湛, 智宗, 海麟 등의 탑비가 존재하여 당시의 그들의 활약과 사상을 밝혀 주고 있다. 사실 이들 승려들이 원주에 거주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으나 이들이 소속된 사찰의 종파나 사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원주의 불교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원문화권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와 시대성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 그러나 북원문화권이 원주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주를 둘러싼 불교사료를 중심으로 시대적 추이와 신앙, 유물을 연결시켜 북원문화권 불교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의 시간적 범위는 이들 사찰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다고 보여지는 신라 하대이후 고려 전반기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이시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원주불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원주의 불교에 대해서는 특히 나말여초의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 원주의 지방세력과 신라 태봉동 후삼국세력의 대응을 밝히는 이인재 교수의 일련의 업적이 있었고<sup>2)</sup> 지종과 해린의 활동을 밝히는 연구업적이 있어<sup>3)</sup>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불교미술사적 입장에서 원주지역의 불상을 중심으로 원주불교의 신앙을 알려주는 업적도 있다.<sup>4)</sup> 필자는 이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 2) 李仁在, 2000, 「고려의 불교정책과 원주불교계의 역할」 『원주시사』  
 —, 2001-1,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敎界의 動向」 『치악산의 불교문화』  
 —, 2001-2, 「나말여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 연구』 2.  
 —, 2003-1, 「나말여초 거둔사 승려활동에 관한 연구 -지증 도한과 원공 지종을 중심으로-」 『梅芝論叢』 19.  
 —, 2003-2,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敎界의 動向」 한국고대사학회 발표논문.
- 3) 金龍善, 1996, 「高麗 前期의 法眼宗과 智宗」 『江原佛敎史研究』  
 金南允, 1996, 「高麗 前期의 法相宗과 海麟」 위의 책.  
 토니노 푸지오니, 1996, 「高麗時代 法相宗敎團의 推移」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4) 林玲愛, 1999, 「元祐 5年(1090)銘 原州立石寺磨崖佛坐像小考」 『講座 美術史』 12.  
 —, 2001,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美術史學研究』 228-229합집.  
 崔聖恩, 1996,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 美術史』 8.  
 —, 2002, 「나말여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사고-」 『역사와 현실』 44.  
 金惠婉, 2000, 「普願寺鐵佛의 造像 -고려초 原州鐵佛과 관련하여-」 『史林』 14.



## 2. 원주지역의 영역변화와 범위

신라는 신문왕대에 새로이 통합된 영토를 모두 포함하고 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위해 9주 5소경제를 실시하였다. 이미 원주에는 통일전쟁을 끝낸 직후인 문무왕 18년(678)에 새로이 편입된 예성강 이남의 고구려 영토 즉 경기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철원지역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sup>5)</sup> 강원도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을 통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복원소경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신문왕 5년에는 복원소경에 축성을 하였는데 주위가 1,031步였다고 하고 대략 당시 복원경의 범위는 현재의 원주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6)</sup>

그런데 신라는 하대에 들어가자 골품제도의 모순과 정치문란으로 농민의 유망이 확산되자 신라정부는 농민유망의 확산을 막고 골품체제의 붕괴를 막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흥덕왕 3년(828)에서 12년 사이에 府制를 실시하였다.<sup>7)</sup> 그리하여 5소경은 5府가 되어 각각 그 관할구역이 확대되었는데 복원경도 복원부로 되었고 그 관할구역도 확대되어 고려시대 전기의 원주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 즉 복원부의 관할지역은 후술할 바와 같이 고려시대 원주가 이끄는 속현 가운데 신라 9주 중 하나인 溟州 관할 하의 영월군과 평창현 영춘현 주천현, 漢州 관할하의 황령현을 제외한 제천 단양 일부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8)</sup>

이후 복원부는 고려시대 원주로 바뀌었다. 신라의 복원부에서 고려의 州인 원주로 지명이 바뀐 것은 태조 23년(940)이고 이어 현종 9년(1018) 知州事의 州로 바뀌어 원주는 州縣의 영속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고려사』 권56 지리1에는 領縣인 원주를 중심으로 外官이 파견되지 않는 屬縣이 기록되어 그 영속관계를 알 수 있는데 원주의 관할 아래 있는 속군으로 寧越郡, 提州가 있고 속현으로 平昌縣, 丹山縣, 永春縣, 酒泉縣, 黃驪縣이 있다. 이중 영월군 평창현 영춘현은 고려초에 이미 원주에 내속되어 원주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말여초 고려전기까지 원주역사의 지리적 범위는 현재 원주시 일원을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영월, 제천, 평창, 단산, 영춘, 주천 여주 등지까지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원주권과 직접 관계된 사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추구해 볼 것이다.

5) 全德在, 2002, 「신라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震檀學報』 93, 35쪽.

6) 李仁在, 2001-1, 위의 글, 78쪽.

7) 배종도, 1989, 「신라하대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고찰」 『학림』 11 43-46쪽.

8) 이인재, 2001-1, 82쪽.

### 3. 비마라사와 화엄종

원주지역의 불교에 대해서 가장 일찍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三國遺事』 권 4, 義湘傳敎에 나오는 화엄 10찰 중에 原州 毗摩羅寺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도이다. 비마라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때 원주 시내 봉산동 일대로 보는 설도 있었으나<sup>9)</sup> 현재는 영월군 남면과 충북 단양군 영춘면 경계에 있는 大華山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sup>10)</sup> 이에 따르면 현재 행정구역상 비마라사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비마루이다.

원주 비마라사는 의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나<sup>11)</sup> 10세기경 최치원이 지은 「法藏和尚傳」에는 나오지 않고<sup>12)</sup> 13세기에 만들어진 『三國遺事』에만 나오고<sup>13)</sup> 다른 十刹은 대부분 山名과 함께 사찰명이 나오는데 반해 원주 비마라사만이 산명이 아니라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비마라사가 의상의 1,2대 제자들이 각 지방에서 활약할 당시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못하다가 화엄종찰인 부석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sup>14)</sup> 의상의 손제자 神琳이 활약한 세달사와 아주 근접하여 있었다는 점에서 一然이 나중에 화엄십찰에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sup>15)</sup>

그런데 대화산에는 화엄십찰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의상 부석법손으로 불리우는 손제자 神琳이 주석하였던 世達寺가 동쪽으로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영월군 영월읍 홍월리 흥교분교가 세달사의 자리이다. 興敎寺는 세달사가 변하여 된 사찰명으로 이곳에서 기와편 석탑부재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웃 비마라사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sup>16)</sup> 비록 현재는 행정구역이 강원과 충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세달사와 비마라사는 대화산의 동·서자락

9) 장충식, 1979, 「新羅 毘摩羅寺址考」, 『東國思想』 12.

10) 김성찬, 1998, 「원주 비마라사지 위치고」, 『박물관지』 7, 충청대학 박물관.

11) 『輿地圖書』 “忠清道 永春縣 寺刹, 毗摩寺在毗摩羅山 距縣十里 俗傳 僧義湘 彈丸點地 仍構此寺 爲火賊所燼 辛亥 僧師彦改創云 今廢”

12) 崔致遠, 「法藏和尚傳」 “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焉 中岳公山美理寺 南岳知異山華嚴寺 北岳浮石寺 康州迦耶 山海印寺 普光寺 熊州迦耶峽普願寺 鷄龍山岬寺 良州金井山梵語寺 毘瑟山玉泉寺 全州母山國神寺 更有如漢州負兒山青潭寺也 此十餘所” 『한국불교전서』 권3, 775쪽.

13) 『三國遺事』 권4 義湘傳敎, “湘乃令十刹傳敎 太伯山浮石寺 原州毗摩羅 伽耶之海印 毗瑟之玉泉 金井之梵魚 南岳華嚴寺等是也”

14) 부석사에서 북으로 올라가려면 영춘 제천 원주를 통과해야 한다.

15) 李仁在, 2001-2, 203-205쪽 이인재는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을 읽은 일연이 화엄십찰 부분에 대해서 최치원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최치원이 법장제 화엄을 중심으로 10찰을 기록한 것에 반하여 일연은 의상제 화엄으로 제보를 재정리하는 가운데 원주 비마라사가 제시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울러 이인재는 비마라사의 창건시기를 영춘현이 원주의 속현으로 들어오는 신라 하대로 추정하였다.

16) 張俊植, 1999, 「世達寺의 위치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11·12·13합집, 471쪽.

에 위치하여 있고 태백산과 소백산의 한 중간에 위치한 華嚴宗刹 부석사에서 제천 원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위치였던 만큼 비마라사가 원주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 비마라사보다 원주에 근접해 있는 세달사도 홍덕왕 이후 府制의 성립에 따라 원주권에 넣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마라사에서의 화엄교학과 신앙은 세달사와 거의 같았을 것이다. 세달사는 물론 궁예가 청년기에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나 그 이전 의상의 손제자 神琳과 그의 제자 質應이 起信論을 강의하였던 곳이자, 명주에 莊畬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찰이다. 그렇다면 의상(625-702)의 화엄 사상과 신앙방식은 신림과 질응을 통하여 세달사와 비마라사에 그대로 전수되고 구현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의상의 10대 제자에는 悟眞·智通·表訓·眞定·眞藏·道融·良圓·相源·能仁·義寂 등 十大德이 있어 領首가 되었는데 모두 亞聖이라 불리울 정도로 교학과 포교 등의 활약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중 相原(常元 相圓 相元 相源으로도 불리움)의 제자 神琳은 대체로 8세기 후반기에 활약하여 불국사, 月璣寺 부석사 등지에서도 법회를 주관하였고 부석사에서는 1000여명의 대중이 운집하였다고 한다. 그가 浮石嫡孫이라<sup>17)</sup> 불리우고 “世達寺沙門神琳”으로 기록되고 있음과<sup>18)</sup> 그곳에 의천 당시까지 眞影이 보관되었던 것을 보면<sup>19)</sup> 신림은 부석사의 의상 화엄교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명망도 높았고, 한때 세달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달사에서는 신림에 대한 존경이 고려 義天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림의 제자에는 法融 崇業 融秀 質應 順應 등이 있는데 이들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전반기에 활약하였다. 이중 質應은 태백산 智悟가 주석하던 사원에서 하안거를 하면서 華嚴經과 지엄의 華嚴經孔目章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터득한 바를 신림에게 물어 옳았다는 인가를 받았고<sup>20)</sup> 세달사에서는 起信論을 강의하면서 화엄경의 十重解釋과 기신론의 八重解釋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다.<sup>21)</sup>

즉 세달사에는 의상 화엄이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이다. 의상의 화엄교학은 華嚴一乘法界圖를 중심으로 하는 圓融思想의 철저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와 개체 또는 개체와 전체 사이의 조화와 평등을 추구하여 지위와 신분이라는 세속적인 위계질서에 벗어나서 불법 앞에 평등을 추구하고 불교적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상은 경주

17)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 “新羅僧法融 受業於浮石嫡孫神琳和尚 造釋” 『韓國佛教全書』 4, 81쪽.

18)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上, 위의 책, 385쪽.

19) 義天, “浮石寺禮想師影·興教寺禮神林祖師影” 『大覺國師文集』 권 18, 위의 책, 560쪽.

20) 「法界圖記叢錄」 권 上之一 “崇業師觀釋中 釋明難品心性是一之文云…… 質應大德在大白山智悟師蔽 結夏之次 得大經中法性無所轉文 及孔目中性種性本有習種性修生者非佛法所樂 乃至云法性外有修生起者緣起加增失等文 呈於林德云此是濕過海之證也 林德曰 是也” 『大正藏』 45.

21) 「法界圖記叢錄」 권 下之二, “梵體德云 昔質應德在世達蔽 講起信論云 若不得知花嚴經中十重解釋者 終不能得 花嚴文意 又若不知起信論中八重解釋 則亦不能得此論文義也” 위의 책.

에서 소외되었던 지방과 일반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어 포교활동에 치중하였고 교학적인 연구보다 화엄사상의 사회적 실천에 치중하였던 것이다.<sup>22)</sup>

또한 의상은 화엄신앙으로 관음과 아미타신앙에 몰두하였다. 보통 관음신앙이 현세이익적인 성격이 강하나 의상의 관음신앙은 신라가 이미 정토이고 불국토로 眞身常住(낙산)의 국토임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구도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sup>23)</sup> 이어 의상은 이러한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아미타정토신앙을 추구하였다. 그의 아미타정토신앙은 타방인 극락정토로의 왕생에 의한 안주한다는 일반적 아미타신앙이 아니라 현세중심적인 왕생신앙으로 신라 자체를 정토이고 불국토임을 인정하고 평생 계율을 통한 수행인으로서 불교적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이를 몸소 실천하는 종교운동이었던 것이다.<sup>24)</sup>

그런데 의상의 아미타신앙은 일반민에게는 매우 실현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세달사승 調信의 신앙형태에서 잘 나타난다. 즉 조신의 꿈이야기는 8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三國遺事』 권3,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에 의하면 세달사승 調信은 知莊이 되어 溟洲捺李郡에 있는 세달사 莊舍에 파견되었는데 조신은 태수 金昕의 딸과 맺어지기를 洛山大悲像 앞에 가서 몰래 빌었다, 조신은 꿈속에서나마 40여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자식도 얻었으나 빈곤한 호구생활을 하였고 자식은 굶주려 죽어 溟州蟹縣嶺에 묻고, 병들고 고달픈 생활 끝에 회환만 남은 채 조신은 김흔의 딸과 헤어지게 되고 꿈에서 깨어난다. 조신은 죽은 아이의 환생인 미륵상을 얻어 봉안하고 자신은 정토사를 지어 부지런히 白業을 닦았다고 한다.

조신 당시 세달사는 의상의 4대 법제자 질웅이 강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로 조신이 있었을 때도 의상의 화엄신앙은 강력히 존재하였을 것이다. 화엄승 조신은 의상에게 眞身常住의 증거를 보여준 낙산 관음보살에게 자신의 소망을 빌었고 낙산 관음상은 꿈속에서나마 그 희망을 구현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원을 한 것에 대한 참회와 회환뿐이었다. 여기서 출토된 미륵상은 미륵하생의 희망의 표식이라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조신은 정토사를 지어 白業을 닦아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신의 신앙형태는 의상계 승려들의 고차원적인 실천신앙으로서의 화엄신앙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내세구복적이라 할 수 있다. 조신의 설화는 의상의 화엄신앙이 팽배하였을 세달사 승려에서조차 극락왕생을 위한 정토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830년경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당시 질웅 등 의상의 법제자들이 세달사에 활약하고 있었다면 의상화엄의 아미타신앙은 승려들 사이에서

22) 남동진, 1996,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 61-62쪽.

23) 정병삼, 1998, 「의상의 신앙과 그 사회적 성격」 『의상 화엄사상 연구』 239-243쪽.

24) 남동진, 위의 책, 61쪽.

도 교학승과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추구하는 일반승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세달사에서 불교를 배운 궁예의 등장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세달사의 분위기는<sup>25)</sup> 고도한 교학승의 활약과 한편 관음 미륵 아미타의 신앙을 모두 망라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개인구복적인 일면을 모두 나타내어 의상화엄신앙의 변질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신라 하대 화엄종은 지나치게 이론에만 치중하여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으로 관념화하여 의상의 간단한 法界圖에 대해 많은 주석서가 나왔을 정도로 번잡하고 현학적이 되고 있었다.<sup>26)</sup> 이러한 화엄종의 변화는 선종의 등장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석사계는 중국에서 새로 번역된 80화엄과 40화엄을 수용하여 연구하지 않고 오직 의상이 공부한 60화엄만을 계속 주석하여 의상의 화엄교학만을 고수하고 있었고<sup>27)</sup> 본래 의상의 화엄교학이 실천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나 質應이 태백산의 智悟의 戴華嚴經과 지엄의 華嚴經孔目章을 수학하였다든가 질응이 세달사에서 기신론을 강의하면서 화엄경의 十重解釋과 기신론의 八重解釋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한 것은 아직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의상의 화엄교학만을 고수하면서 字句 해석을 중시하는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말폐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종의 화엄종 비판에 대해 남악<sup>28)</sup> 즉 해인사계에서는 9세기 말에 華嚴結社를 조직하여 화엄학 및 신앙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일어나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있으나<sup>29)</sup> 북악인 부석사계통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소백산 태백산지역의 부석사계통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부석사계의 보수성에 대하여 부석사에서 수학한 승려들 중에 선종으로 전향한 선사가 많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성주산문의 개조 無染(800-888)은 13세인 812년 설악산 五色石寺에서 출가해 法性선사의 문하에서 수업하다가 훗날 부석사 體澄大德의 문하로 옮겨 화엄학을 공부한 다음 入唐하였고, 동리산문의 개조 慧徹(785-861)은 15세인 799년

25) 이 설화의 중에 溟州 蟹縣嶺에서 미륵불이 나왔다고 하고 조신이 정착한 곳인 羽曲縣은 羽溪縣으로 현재는 옥계지역으로 본래 세달사의 위치와는 떨어져 있으나 조신이 세달사로 돌아와 정토사를 세운 것을 보면 명주지방의 것만의 미륵신앙과 아미타정토신앙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6) 그 이유에 대해 김상현은 중국 화엄교학 전적의 유입과 화엄 유학승들의 귀국, 유식학의 융성으로 법상종에서의 화엄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화엄교학이 번잡하고 현학적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金相鉉, 1991, 「新羅下代 華嚴宗의 理解」 『新羅華嚴思想史研究』 225-226쪽.

27) 金福順, 1990, 「新羅 下代 華嚴宗의 系派」 『新羅華嚴宗 研究』 100-101쪽.

28) 신라의 화엄종은 하대에 海印寺의 觀惠와 希朗이 견훤과 왕건의 福田이 되면서 南岳과 北岳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 광종대에 균여에 의해 회통되었다. 이러한 남·북악으로의 분열에 대해 義湘系와 法藏系의 분열, 義湘系와 緣起系의 의상계와 비의상계로 파악하기도 하나 북악의 의상계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남악의 해인사와는 달리 의상의 학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어져 왔던 것이다.

29) 金相鉉, 1991, 위의 책, 298쪽.

부석사에서 출가하여 화엄을 8년간 배우고 814년 입당하였다. 또한 道憲(824-882)도 9세인 832년에 부석사에 나아가 배웠는데 질웅의 제자 梵體大德으로부터 몽매함을 깨우쳤고 17세인 840년 瓊儀律師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안락사(거둔사)에 주지하였고 희양산 봉암사를 창건하였다. 折中(825-900)은 五冠山 珍傳法師에게서 머리를 깎은 후 15세인 839년에 부석사에 나아가 화엄을 배우고 19세인 842년에 구족계를 받고 道允 문하로 옮겨 사자산문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부석사에서 9세기 전반에 화엄을 공부하고 선승으로 전향한 승려가 많다는 것은 선종으로의 전향이 부석사의 당시 화엄종의 경향이 보수적이고 학문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실천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미 830년경의 이야기인 세달사승 조신의 꿈이야기와 신앙은 화엄사찰인 세달사에서 의상의 순수한 화엄신앙에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즉 관음 아미타 미륵신앙으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세달사에서 청년시절을 보낸 궁예도 화엄 외에 미륵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원주지역의 화엄종은 의상의 학통을 이은 세달사와 비마라사를 통하여 그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이 2곳은 부석사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부석사 以北으로의 傳敎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의상의 손제자인 신림과 질웅이 세달사에서 머무르면서 강학하여 의상의 교학과 신앙이 전파되었으나 일반승과 신도에게는 매우 난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미 세달사의 승려 조신의 예에서와 같이 관음 미륵 아미타정토신앙이 복합된 신앙이 이루어졌고 의상의 화엄교학만을 고수하는 부석사계 화엄의 보수성은 부석사에서 화엄을 배운 승려들이 선종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고 이들 중에 도현과 절충은 북원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 4. 거둔사(안락사), 흥법사와 선종

북원경으로서의 원주에는 경주에서 이주해온 진골 귀족들에 의해 화엄, 법상종의 경주불교가 이식되어 왔을 것이다. 9세기에 들어와 중앙통제력 강화를 위한 府체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북원경은 신라 준왕경으로서의 소경의 역할에서보다 양길, 궁예 등 초적의 무리를 앞세운 지방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이런 조짐에 대해 신라정부는 당시 지방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禪師나 선종사찰을 지원하여 반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법상종 승려 道證이 창건하였다는 月岳山

月光寺도 법상종 사찰이었다가 圓朗禪師 大通이 경문왕에 의해 주석함으로써 영원히 선종사찰이 되었고<sup>30)</sup> 장흥 보림사는 화엄종이었다가 體澄이 현안왕의 청에 의해 주석함으로써(859) 迦智山門의 禪刹이 되었다. 그 외에도 玉龍寺 大安寺 元香寺 등이 선찰로 바뀌고 있는데 물론 이들 사찰이 본래 화엄종 사찰이었다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선종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sup>31)</sup> 이러한 현상은 복원부에도 나타나는데 賢溪山 安樂寺의 경우이다. 문경 「鳳巖寺 智證大師碑」에 의하면 지증대사 도현(824-882)은 경문왕의 누이 端儀 長翁主의 청으로 邑司의 영유인 賢溪山 安樂寺에 주지하게 되어<sup>32)</sup> 864년에서 879년 사이 약 15년간 이곳에 머물렀는데 현계산 안락사는 현재 居頓寺址가 있는 玄溪山과 동일한 지역으로<sup>33)</sup> 그 사이 도현은 자신을 승적에 넣어 승려가 되게 한 韓瓘 金嶷勳에 보답하고자<sup>34)</sup> 丈六의 철불을 만들어 금을 발라 절을 수호하고(死者를) 저승으로 인도하게 하였는데<sup>35)</sup> 이로 인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날로 돈독해지고 義를 중히 여기는 자들이 바람처럼 따랐다고 한다.

또한 867년 단의 장웅주는 안락사에 토지와 노비를 시납하여 어느 승려라도 여관처럼 찾을 수 있게 하고 사원을 영원히 바뀌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 즉 안락사에서 바뀐 거돈사는 이후 경제적 안정 속에서 사찰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더욱 단의 장웅주의 시주에 대해 879년 도현은 자신의 땅 田莊 12區와 田 500결을 희사하였고 南川郡 僧統 訓弼로 하여금 농장을 가리어 正場을 구획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남천군은 경기도 이천군을 말하는 것으로 거돈사의 관할 범위는 대단히 넓었고 경제적 기반도 확고하였을 것으로 거돈사는 신라세력이 주도하는 복원부의 불교계의 중심지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즉 거돈사는 안락사에서 단의 장웅주의 시주와 도현의 거주로 인하여 거돈사로 바뀐 후 선종사찰로서 당시 도적 떼들을 진압시켰고

30) 「月光寺 圓朗禪師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147-148쪽.

31) 김상현, 「新羅 下代 華嚴宗의 理解」 위의 책, 236-238쪽.

32) 단의 장웅주가 도현을 안락사로 부른 이유는 첫째 신라 정부에서 이 지역의 정치적 입장이 모호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단의 장웅주의 食邑이 이 지역에 있었던 점 외에 도현도 선종대 중화정책에 사원 경제력이 필요하여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인재, 2003-2, 위의 글, 177쪽.

33) 金龍善, 1996, 「高麗前期 法眼宗과 智宗」 『江原佛教史研究』 93-94쪽.  
李仁在, 2000-1, 위의 글.

34) 김위훈은 민애왕 1년(838) 달구벌 전투에서 김흔과 함께 金陽軍에 대항하여(김우징을 도와 청해진 군사와 함께) 민애왕 편에 서서 대군을 지휘한 驍勳으로 관계에서 물러나 소백산에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다가 847년에 사망한 것처럼 의훈도 김흔과 같은 정치적 역정을 거치면서 부석사에서 도현에게 도첩을 주어 승려가 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재, 2003-2, 위의 글, 176쪽. 그렇다면 위훈은 부석사에서 은둔하다 출가하여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하던 도현을 17세에 구족계를 받은 후 선종으로 이끌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5) 李仁在는 “鎮仁宇 導冥路”의 구절을 사원을 진압하였다고 해석하여 이때 안락사가 거돈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이인재, 2003-1, 위의 글, 174쪽.

오가는 승려들에게는 여관과 같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영구히 사세를 유지할 수 있게 토지 노비를 받았고 도헌 자신의 토지를 합하여 대단한 사세를 오랫동안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헌은 879년에서 881년 사이 沈忠이 희사한 땅에 鳳巖寺를 창건하느라 3년 동안 봉암사에 머문후 다시 현계산 안락사로 돌아와 882년 입적하였다. 도헌이 봉암사를 창건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시주받은 땅의 地勢를 보아 사찰의 창건이 가능한가를 살피고 사찰이 되지 않는다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라 하여 사찰을 창건하고 있다. 즉 이는 사찰건물로 지세를 진압하고 철불 2구로 적으로부터 사원을 수호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아마도 도헌은 철불주조가 주변의 도적들로부터 사원을 수호하는데 효험이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9세기 후반에 당시 원주일대 문경 일대 도적의 무리들이 사원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횡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태조 11년(928) 원주 山澗寺의 철불이 3일간 땀이 났다는 기록도<sup>36)</sup> 이러한 징조를 미리 알려주는 영험함을 산간사 철불이 갖고 있었다는 말해주는 것으로 이와 함께 10세기 전반의 제작으로 추측되는 3구의 원주철불의 존재는 상당기간 이러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런데 단의 장용주가 경문왕 4년(864) 도헌을 안락사로 초빙할 때 도헌을 ‘當來佛의 下生’이라 치칭하고 귀의한 것으로 보면 당시 원주지역이 사회적 혼란과 함께 반신라왕실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원주지역에 미륵신앙이 팽배하여 있어 이를 염두에 둔 의미있는 말로 보인다.

사실 원주지역은 822년 김헌창의 란때 國原京·西原京·金官京이 수령을 협박하여 헌창의 진영이 된 것에 비해 憲昌의 逆謀를 알고 擧兵自守하였다. 즉 북원경은 관망의 자세를 한 것으로 신라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었겠으나 이후 부제의 실시로 북원부로 확대되어 통제력은 강화되자 북원부는 오히려 반신라적 지방세력들의 소굴이 되었다. 즉 북원부 관내 영월 흥녕선원의 절충은 882년 이후 영월 師子山 雲父禪師의 청으로 사자산 흥녕선원에 거주하고 있다가 886년 전란으로 상주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흥녕선원은 불타 폐허가 되었고, 이 무렵 북원부에서는 양길과 궁예가 불만농민층을 결집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기반으로 패권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양길은 원주 영원산성을 중심으로 국원경 등 원주의 서쪽을 향하여 세력을 결집하고 있었고, 궁예는 죽주장군 기훤 밑에서 있다가 대우해 주지 않자 북원의 양길 밑으로 들어가 2년여 북원에 머물면서 892년에는 양길을 도와 기병 100명을 동원하여 영월군 관내 평창 주천 등을 습격하였고, 894년에는 무

36) 『高麗史』 권 54, 五行 2.



리 600명을 이끌고 영월을 지나 명주를 공략하여 무리가 3500명으로 대폭 늘어나자 스스로 장군을 칭하고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899년 양길과 궁예의 대결은 결국 궁예의 승리로 끝나고 복원부는 한동안 궁예의 휘하에서 있게 되었던 것이다.

궁예는 화엄종 사찰인 영월 세달사에서 善宗이라는 법명으로 승려생활을 하면서 화엄종에 익숙하였고 또한 조신의 꿈이야기를 통한 관음 미륵 아미타정토신앙 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정치적 야망이 컸던 궁예는 후에 경서 20권을 스스로 짓고 미륵불을 자칭한 것을 하였던 것처럼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그의 점령지인 명주나 원주의 백성들 사이에 이미 미륵신앙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원주지방에 당시에 유행하였던 말세의식을 통한 미륵신앙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원주에서의 지방세력의 충돌은 말세를 재현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원주지역의 선종은 처음에는 거둔사나 흥녕사를 거점으로 모두 신라의 지원을 받았으나 흥녕사는 불타고 거둔사는 도헌 입적 후 지중이 하산할 때까지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사세가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원주는 양길 궁예 등 당시 불만 농민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모은 세력가들이 서로간의 세력경쟁을 벌였고 소경으로서의 신라정부의 세력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양길과 궁예의 알력에 의한 전투 등 아주 혼란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신라 귀족이나 토착세력가들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였을 것이고 일반백성들은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정토신앙과 미륵신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당시 가장 신선한 궁예에게 끌리는 불만농민층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궁예의 미륵신앙이 점차 정치적으로 변질되면서 농민층의 기반이 상실되어 갔고 궁예의 말이 邪說 怪談이라 하여 피살된 釋聰의 말처럼 기존의 불교계는 궁예의 미륵신앙에 동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원주에 왕건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왕건은 고려 건국 후 견훤과의 격전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흥법사에<sup>37)</sup> 충담을 왕사로서 주지시켜 안정을 모색하게 된다.

「興法寺 眞空大師碑」에 의하면 충담(869-940)은 경주귀족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10대에 출가하여 21세인 889년 武州 靈神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봉림산문의 진경대사 審希(853-923)의 제자로 충담은 특히 계율을 특히 중요시 하여 相部를<sup>38)</sup> 익히고 계율(毘

37)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가 있는 건등산은 왕건이 올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곳의 반대편에는 견훤군이 주둔하였다는 견훤산성이 위치하여 10세기 전반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8) 기존에 충담이 익힌 相部를 법상종으로 보아 충담은 선종승려이면서도 법상종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아왔으나 김두진, 1983, 「性相融會 思想成立의 思想的 背景」 『均如華嚴思想研究』 119쪽. 그러나 상부는 相部律 3과 중의 하나로 계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남동신 선생의 제언)

尼)을 정밀히 탐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충담은 學人들에게 오로지 공부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는데 武州지방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자 入唐을 하게 되고 약 20여년간 있다가 918년 스승이 있는 김해지방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곳이 견훤군의 침입으로 전운이 감돌자<sup>39)</sup> 충담은 개경으로 떠나게 되는데 왕건은 王師로서 맞이하여 홍법선원을 다시 일으켜 주지하게 하였다고 한다.<sup>40)</sup> 이곳에서도 그는 옛 계율에 따라 활동하였는데 신도들이 구름같이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홍법선원에는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精舍를 세웠으나 대사가 이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sup>41)</sup> 이곳은 아직 왕건에게 확실한 기반이 되지 못 하였던 모양으로 왕건에게는 각별히 걱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홍법사에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충담을 주지로 한 이후 그의 문도들이 주변을 진압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법사 부근은 932년 까지도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었던 것이다.<sup>42)</sup> 940년 충담이 입적하자 곧 아주 특별히 왕건은 자신이 비문을 지어 비석을 세우고 있어 충담에 대해 각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거둔사가 신라왕실의 지원을 받았던 선찰이라면 홍법사는 태조 왕건의 지원을 받은 사원으로 거둔사는 신라왕실의 지원이 중단되자 사세가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고 원주가 고려의 영토로 들어가자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충담은 鳳林山門 審希의 제자이다. 심희는 고달사의 玄旻의 제자로 소율희 소충자의 후원으로 김해부에 선문을 연 다음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는데 충담 외에 元宗大師 璨幽(869-958)와 慈寂禪師 洪俊(882-939)이 있다. 찬유는 892년 당에 유학을 간 이후 약 30년 후인 921년 귀국하여 강주 봉림산문을 찾았다가 심희의 입적 후 곧바로 924년 왕건을 찾아가 天王寺를 거쳐 慧目山 高達院을 재건시키고 있다. 고달원과 홍법사는 남한강으로 연결된 가까운 곳으로 법천사와 거둔사와도 연결된다. 충담과 찬유는 같은 심희의 제자로 비슷한 시기에 귀국하여 왕건의 지원 하에 비슷한 시기에 지척에서 선답을 펼쳤으나 둘의 교학적 관계는 알 수

39) 『三國史記』 권50, 甄萱傳에 의하면 견훤은 일찍이 경상도지역에 관심을 두어 효공왕 5년(901)에는 陝川지방의 大耶城을 공격하였고 경명왕 4년(920)에는 大耶城과 草溪지방의 仇史城을 함락시켜 신라 침입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어 김해의 進禮城으로 군사를 옮겨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신라는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태조는 군사를 출동시켰는데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물러갔다. 경애왕 3년(927)에는 견훤이 경주를 급습하여 경애왕을 시해하였다.

40) 그 시기에 대해 충담의 나이 59세(924)에서 69세(934)사이로 볼 수 있다고 한다. 李仁在, 2001-2, 위의 글, 212쪽, 그렇다면 충담은 적어도 7년 이상 홍법사에 머문 것이 된다.

41) “所以重起其興法禪院 以住持 □□□吉祥之地 尙論往美 更知延福之庭 志有終焉 心無悔矣 然則 遂於此地 高敞禪局 來者如雲 學人如霧 依舊瑠璃□□□□□□□□□□於國 □□□□□聞興法之談 不受大師之誨者 處處精舍 其徒擯之”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85쪽.

42) 「靈巖寺 寂然國師碑」에는 寂然國師 英俊은 京山府 출신인데 932년 그의 모친이 원주 관내 홍법사에서 기거하던 중 출생하였다고 한다. 당시 홍법사의 정황은 주변에 緣林의 소굴이 있었고 반란 적들이 근처에 있어 숨어 있는 정황이었다고 한다.

없다. 다만 찬유가 중국에서의 한창 유행하던 선교일치사상과 천태의 사상을 접하고 돌아와 적극적으로 개경으로 왕건을 찾아간 것과 달리 충담은 입적할 때까지 원주에 머물면서 계율을 중요시하고 선탁을 편 것으로 보아 기존의 선사상에 충실하면서도 철저히 자기관리를 하는 보수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고려 초 원주에서는 거둔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홍법사가 왕건의 지원으로 부각되었으나 전쟁이 끝나고 주변에 고려 왕실과 연관된 충주유씨의 지원을 받는 충주 정토사가 부상하였고<sup>43)</sup> 영월의 홍녕사도 고려 왕실과 고려 정권에 참여한 廣州, 忠州, 溟州등의 세력들이 참여하여 재건되는 것을 보면<sup>44)</sup> 940년 충담의 입적 후 홍법사에 대한 왕실의 열기는 많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

## 5. 거둔사와 법안, 천태종

거둔사에 대한 기록은 도현의 입적후 없다가 圓空國師 智宗(930-1018)의 하산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사이 거둔사의 성격은 이후 선종 중의 하나의 갈래인 법안종풍의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종이 거둔사에 머문 시기는 89세인 현종 9년(1018)에 개경 廣明寺에서 하산하고 입적한 단기간이나 지종이 거둔사로 하산한 이유는 물론 거둔사가 광명사의 본사로써 광명사의 향화비용을 대는 본말관계에 있었던 이유도 있겠으나<sup>45)</sup> 거둔사가 도현이후 주변의 봉암사 고달사와의 관계 속에서 지종의 개인적인 학맥과 선교일치적인 교풍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봉암사는 도현이후 거둔사와 연결되었고 고달원도 남한강을 통한 수로를 이용하면 거둔사와 지척의 거리에 있어 언제라도 왕래가 가능한 곳이다.

광종은 즉위 초 고달원의 찬유(949년 이후)와 봉암사의 兢讓(951년)를 각각 국사와 왕사

43) 정토사는 현휘가 924년 귀국하자 왕건이 국사대우를 하여주고 정토사에 머물게 하였다. 현휘는 941년 입적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충주 호족이자 정종과 광종의 외가가 되는 충주유씨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44) 886년 폐허가 되었던 홍녕선원은 혜종 원년(944)에 세워진 澄曉大師 折中の 비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월로 王堯(정종), 王昭(광종) 뿐 아니라 王順式의 아들인 王廉과 태조의 8비인 貞穆夫人의 父인 王景, 광주호족 王規 등 주변의 廣州 忠州 溟州등의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5) 『東國李相國集』 권35 故 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 追封靜覺國師碑銘 “上以廣明寺近帝闕請住焉 申以居頓寺爲本寺充香火之費” 무신집권기인 康宗때 志謙이 왕사로 책봉되어 국왕으로부터 대궐과 가까운 곳인 광명사에 머물기를 요청받고 거둔사를 광명사의 향화비용을 대는 본사로 하였다고 한다.

로46) 개경으로 불러 舍那禪院에 머물게 하고 설법을 들었는데 광종이 이들을 부른 것은 이들이 선교일치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47) 특히 舍那寺는 937년 지종이 출가한 사찰로 지종은 사나사의 인도승 弘梵三藏이 곧 인도로 귀국하자 廣化寺의 景哲和尚에게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사나사와도 왕래하였을 것으로48) 그는 靈通寺에서 수계를 받은 후 24세에(광종 4년:953) 봉암사로 공양의 제자인 迥超禪師를 찾아가고 있는데 당시 봉암사에는 공양도 귀산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지종은 다음해(954년) 승과에 합격하였고 959년 꿈에 나타난 찬유의 권유로 중국 유학을 결심하였을 때까지 봉암사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러한 유학가기 전의 지종의 행보는 지종의 초기 사상형성과 활동에 고달원의 찬유와 희양산 봉암사 공양의 영향이 컸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지종은 이들에게서 선교일치사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광종이 추구하였던 불교의 국가통제와 불교의 사상통합을 위한 불교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공양과 찬유는 광종 초기 불교정책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광종은 승과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찬유의 3대조 스승인49) 丹霞 화상과 같이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불성을 찾는 승려를 선발하려 하였고 지종이 최초의 합격자였던 것이다.50)

이후 지종은 승과에 급제한 후 광종의 특별한 환송을 받고51) 吳越로 유학을 가게 된다. 당시 오월은 忠懿王 錢弘俶이 통치하던 때로 그는 天台 德韶와 永明 延壽에게 불도를 배우면서 불교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 불교가 크게 일어났던 때였다. 광종은 법안종의 3대 조사 永明寺 延壽를 흠모하여 사신을 파견하고 제자의 예를 갖추었으며 고려 승려 36人を 그의 문하에 보내 印記를 받아 귀국하게 하였는데 그중에 지종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지종 등이 연수에게서 배운 것은 천태 화엄 법상의 3교의 同異와 心宗의 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연수는 萬法唯心を 바탕으로 禪敎一致와 극락왕생을 위한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禪淨雙修의 그의 기본 사상을 전수하였던 것이다.52)

46) 공양은 광종 2년에서 7년 사이에 왕사에 봉해졌고 찬유가 국사에 봉해진 해는 비문에는 즉위 후로 연대가 나와 있지 않으나 화엄종의 謙信이 광종 4년 당시 국사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광종 4년 이후로 보인다. 金龍善, 1996, 「高麗前期의 法眼宗과 智宗」, 『江原佛敎史研究』 85쪽 표 참조.

47) 金杜珍, 1983, 「高麗 光宗代 法眼宗의 登場과 그 性格」, 『韓國史學』 4, 11-14쪽.

48) 李仁在, 2003, 위의 글, 183쪽.

49) 「高達院 元宗大師碑」에 의하면 찬유는 진성여왕 6년(892) 중국 舒州 桐城縣 寂住山으로 가서 投子禪和尚을 예방하였는데 投子大同은 石頭希遷계로 찬유의 법계는 六祖惠能-靑原行思-石頭希遷-丹霞天然-翠微無學-投子大同으로 이어지는데 찬유는 스승에게서 미묘한 말을 깨닫고 진짜 부처를 터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스승의 사상에 깊이 감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50) 「居頓寺 圓空國師碑」 “光宗大王 立皇極崇法門 徵雪嶺之禪 俾伸角妙 選丹霞之佛 明示懸科師 雄入議園 首探理窟 街疊雙之絕藝 彰累百之高名”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2, 216쪽.

51) 광종은 지종에게 특별히 送別宴을 베풀어주고 송별의 詩를 지어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居頓寺 圓空國師碑」, “光宗 聞入洛之言曰 俞懇請 詠于郢之什 親治錢筵 既叙朕離” 위의 책, 216쪽.

52) 延壽의 사상은 그의 저서 『宗鏡錄』과 『萬善同歸集』에 집약되어 있는데 『宗鏡錄』에는 唯心論을 집대성

지중은 연수로부터 심인을 받고 國淸寺로 옮겨 천태교리를 배우고 傳敎院에서 大定慧論과 法華經을 강의하다가 다시 꿈속에 나타난 찬유의 권유로 유학 11년 만인 광종 21년(970)에 귀국하였다. 지중의 중국 법안종 수학에는 광종의 적극적인 의도와 꿈속에까지 나타나 권유한 찬유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찬유는 이미 입적한 후이지만 광종의 적극적인 법안종 수용 의도에는 선교일치사상 천태사상까지 섭렵하였던 찬유의 사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sup>53)</sup> 더욱 지중은 천태종 사찰인 國淸寺에서 淨光大師에게 천태교리를 배우고 大定慧論과 法華經을 강의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중은 吳越에서 법안종과 천태종을 모두 본령에서 섭렵하고 귀국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광종은 22년(971) 고달원 희양원 도봉원을<sup>54)</sup> 不動禪院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변하지 않게 하였다.<sup>55)</sup> 이들 선원은 광종의 법안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던 사원으로 광종은 법안종풍의 3개 사원을 부동선원으로 지정하여 경제적인 지원도 하였을 것으로 부동선원의 지정은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법안종의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광종은 19년(968) 연수의 문하에서 眞佛이 출세하였다고 칭송을 받은<sup>56)</sup> 英俊이 광종 23년(972) 귀국하자 福林寺 주지로 추대하였고 성종은 즉위하자 대사의 법계를 승진시켜 師子山寺로 이주케 하였는데 사자산사는 절증이 있었던 영월 흥녕선원으로 원주권에도 법안종풍의 선종사원이 존재

하여 화엄 법상 천태종 등 諸敎學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선종의 입장에서 체계화하려는 선교일치사상이 서술되어 있고 『萬善同歸集』에는 禪과 念佛을 융합하려는 禪淨雙修의 정도신앙이 있다. 특히 연수는 사후 극락정도왕생을 위해 염불행을 철저히 한 것으로 유명한데 연수는 정도가 唯心所現임을 살피면서도 미타정도를 구하였는데 이는 마음밖에 실로 법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므로 唯心の 이치에 괴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연수는 利根頓機한 사람은 禪淨雙修해야 하며 鈍根下機한 사람은 念佛로 정도왕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53) 지중의 유학과 귀국은 모두 지중의 꿈속에 나타난 찬유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이때는 찬유의 입적 후이나 지중이 찬유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居頓寺 圓空國師碑』에 의하면 유학 갈 때는 “末機魂交 故證眞大師曰 弗登山 何以小魯 弗觀海 何以狹河 事既如斯 汝宜往矣 師覺曰 昔者常啼東請 由應於神人 善財南求 蓋親於知識 今則時非可失 理與冥符 雖云道阻且長 爭敢人涉印否”라 하였고 그가 귀국할때도 “既而睡見本國有寶塔檣天 自繫繩挽之 塔隨力俯仰 又申感故 證眞大師曰 汝能得意 胡莫詠歸耶 乃謂動在隨緣 濟無臭載 若悟式微之戒 過廻不係之程”이라고 하여 생활을 경계하고 귀국을 독촉하고 있다. 위의 책, 216-217쪽.
- 54) 도봉원은 慧炬國師가 주석하던 곳으로 慧炬는 寂然國師 英俊(932-1014)의 스승으로 이미 延壽의 스승인 德韶와 함께 법안종의 개조인 文益 밑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여 광종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광종 9년 전후에 국사로 책봉되었다. 許興植, 『靈巖寺 寂然國師碑』, 『高麗佛敎史研究』 610-628쪽.
- 55) 『高達院 元宗大師碑』, 『乾德九年 歲次辛未 十月二十一日 於元和殿 開讀大藏經時 皇帝陛下 詔曰 國內寺院 唯有三處 只留不動 門下弟子 相續住持 代代不絕 以此爲矩 所謂高達院 曦陽院 道峰院住持三寶 須憑國主之力 所以釋迦如來出世 道佛法付囑國王大臣 是以我皇帝陛下 情深敬重 釋門妙理 共結良因 軌矩恒流』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 285-296쪽.
- 56) 『靈巖寺 寂然國師碑』 “行至吳越國 謁永明寺主 延壽禪師 (중략) 禪師聞曰 東國眞佛出世矣”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2, 188쪽.

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충주의 淨土寺 弘法國師(성종 목종대 활약)도 법안종풍이라 말하여 지는 것을 보면<sup>57)</sup> 지중이 주로 개경에서 활약하였다고 하나 이미 원주를 중심으로 법안종의 성향이 강하게 존재하여 거둔사도 당연히 법안종의 성향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법안종의 주요내용 중에 극락왕생을 위한 염불행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토신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延壽는 利根頓機한 사람은 禪淨雙修해야 하며 鈍根下機한 사람은 念佛로 정도왕생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안종이 선종의 일종이지만 정토신앙을 장려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민에게는 사후 왕생을 위한 정토신앙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었던 것으로 세달사 조신 이래의 아미타, 미륵신앙의 전통은 원주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광종 21년(970) 지중은 귀국하여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귀의를 받고 개경부근에서 활약하다가 법안종의 사원인 거둔사로 현종 9년(1018) 하산하고 곧바로 입적하였다. 그런데 지중은 이미 현종 7년(1016)년에 풍질로 귀산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 이는 현종의 법상종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라 하는데<sup>58)</sup> 그가 하산한 거둔사 부근에서도 이미 법천사를 중심으로 법상종의 교풍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거둔사는 이후 숙종대 의천의 천태종 開宗 당시 高達寺·靈巖寺·智谷寺·神口寺와 함께 천태종의 주요 사원으로 자리 잡았다.<sup>59)</sup> 의천은 延壽의 『宗經錄』으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연수의 직제자인 거둔사의 지중은 당시 천태종 개종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을 것으로 의천은 특별히 지중을 위한 제문을 짓고 있고<sup>60)</sup> 이후 圓妙國師 了世의 碑에도 고려 천태종의 개창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sup>61)</sup> 이렇게 보면 거둔사는 선종에서 법안종풍을 거쳐 천태종 사찰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57) 허홍식, 위의 책, 266쪽.

58) 김용선, 위의 글, 107-108쪽.

59) 「僊鳳寺 大覺國師碑」, 「故居頓神口 靈巖高達 智谷五法眷 各公學徒 因命會合 其外 直投大覺國師 諸山名公學徒 三百餘人 與前五門學徒 無慮一千人 乾統元年辛巳 大覺始舉宏綱 抄學優者一白人 坐奉恩寺 以宗經論一百二十卷 試取賢良四十餘人 而與先國初 大行曹溪華嚴瑜伽軌範齊等 世謂之大業也」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186-187쪽.

60) 義天, 「祭居頓寺智宗國師文」 『大覺國師文集』 권 16

61) 崔滋, 「萬德山白蓮社 圓妙國師碑銘」 『東文選』 권117에는 玄光, 義通 諦觀, 德善, 智宗, 義天이 천태종을 국내에 전도하여 고려의 천태종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 6. 법천사와 법상종

법천사는 법상종사원으로 신라 이후 고려전반기까지 융성하였던 사원이다. 법천사는 이미 신라 이후 官壇이 설치되어 이 지역의 중심사원으로 역할을 하였는데 中原府 출신 眞觀禪師 釋超(912-964)는 7세인 918년 영암산 麗興禪院 法圓大師 밑에서 출가하였으나 928년 법천사 賢睿律師를 戒師로 具足戒를 받았다고 한다.<sup>62)</sup> 법천사는 아마 朔州, 北原府에서는 유일한 官壇寺院으로<sup>63)</sup> 원주에서 가까운 중원부 출신인 석초는 법천사에서 구족계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64)</sup> 이후 법천사에는 해린의 스승인 寬雄대사가 있으면서 법상종교학을 전수시키고 있었고 원주출신 해린(984-1070)은 8살의 나이로 관옹 밑에서 수학하게 된다. 寬雄은 해린을 데리고 개경 海安寺 俊光方丈 밑에게 삭발케 하였다. 해린은 16세인 999년에 龍興寺 관단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崇敎寺 開倉 기념법회에서 초직을 받았다. 해린은 다시 법천사 관옹대사를 찾아가 海鱗이라는 법명과 巨龍이라는 字를 받고 21세인 1004년에는 王輪寺 大選場에 나아가 급제하고 大德의 법계를 받았다. 이후 해린은 계속 승진하였고 현종, 덕종, 정종, 문종대를 지나는 동안 무난히 승진하여 73세인 1055년 왕사에 추대되었다. 그 사이 덕종대에는 궁중에서 妙法蓮華經을 강의하였고, 문종 1년(1046)에는 궁중에서 唯心妙義를 강의하였다. 84세인 문종 21년(1067) 법천사로 돌아와 1070년 87세로 입적하였다.

그의 장례는 문종이 원주 창고에 있는 양곡으로 법요식에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입적 후 15년만인 선종 2년(1085) 해린의 부도와 부도탑비가 건립되었다. 즉 해린이 법천사에 거주했던 시기는 관옹 밑에서 수학하고 관옹을 따라 나선시기까지, 현종 1년(1010) 법천사로 관옹을 만나러 온 이후 1021년 명주 水多寺로 옮길 때까지 약 10여년간, 이후 현화사 주지 등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문종 21년(1067) 법천사로 하산한 다음 1070년 입적할 때까지 4년간이 된다. 즉 해린은 어려서부터 법천사에서 법상종을 수학하였고 거란의 침입시기인 현종 1년 이후 10년간인 청년시절에도 법천사에 머물면서 법상종의 교학 연구에 몰두하였던 것이다.<sup>65)</sup>

그런데 해린이 입적한지 15년후 그의 부도탑과 탑비가 건립되는 것을 보면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그 사이 그의 추모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法泉寺 智光國師碑」 음

62) 「智谷寺 眞觀禪師碑」, 『歷代高僧碑文』 고려 2, 126쪽.

63) 韓基汶, 1998, 「高麗前期 受戒와 戒壇」,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367쪽. 계단은 신라 이후 특정 사원에만 설치되다가 9세기 이후 官壇이 대략 9주에 걸쳐 설치되었다고 한다.

64) 漢州에는 莊義寺, 長谷寺(白城郡: 경기 안성)가 있었다. 韓基汶, 위의 책 참조.

65) 해린은 법천사로 오는 도중에 眞肇를 만나 曆算法도 배웠다.

기에는 1400여명의 제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sup>66)</sup> 그중 최고 책임자는 현화사주 승통 韶顯과 속리사주 승통 釋窺이라 할 수 있다. 해린의 직제자 韶顯은 1030년 해린이 海安寺 주지였을 때 그의 밑에서 삭발한 고려 대표적 문벌귀족이었던 李子淵의 5子이고, 승통 釋窺은 문종의 6자로 소현의 직제자이다. 그 외에 음기에는 인주 이씨 李頴의 자로서 玄化寺僧 世良, 義天에게 유식학을 가르쳤던 祐祥, 수주최씨 최사위의 손자로 觀輿에게 유식을 가르쳤던 尙之 등 당시 쟁쟁한 가문을 가진 유식학 승려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들이 해린의 추모사업을 주도하여 국가와 인주이씨 등 문벌귀족들의 후원 속에서 우리나라 최고 양식과 기술로 부도와 탑비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천사지 발굴에서 특별히 해린의 부도탑과 탑비를 위한 예배시설인 塔·碑殿이 마련되었음이 확인된 것은<sup>67)</sup> 그들이 심혈을 기울인 정도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법천사에서의 해린 추모사업은 법천사가 인주이씨의 문벌귀족세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들의 정치적 행보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인주이씨 권력과의 관련은 법천사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특히 법천사는 1126년 이자겸의 란이 실패한 후 사세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圓證僧統 德謙墓誌銘」에 의하면<sup>68)</sup> 이자겸의 아들 義莊이 현화사에 있으면서 國戚이라는 권세를 믿고 수좌가 되어 諸老師, 有德者를 꺾박하여 자신의 문도로 삼으려 하였고 이자겸의 란이 일어나자 의장이 덕점을 강제로 자파로 포섭하려 하여 덕점은 三角山 香林寺로 피신하였다가 이자겸 란이 진압된 후 三重大師로 승진하여 天興寺에 주석하였다고 한다. 이후 법천사의 대종이 橫恣가 극심하다고 하여 덕점은 왕명(仁宗)으로 법천사로 파견된지 몇 달만에 이를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법천사의 소요는 법천사가 이자겸의 란에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주이씨가 세력을 상실하게 되자 그의 추종세력들이 일으킨 것으로 추측되는데 덕점이 파견되어 수습한 것이다.

그 이후 법천사에는 水州 崔氏로 崔士威의 현손이자 崔繼芳의 2자인 觀輿(1096-1158)가 수좌로서 1146년 주지가 되어 1154년 修理寺 주지로 가기까지 만 8년간 있었으나 법상종의 주도세력이 정현계로 넘어가자<sup>69)</sup> 법천사는 그 이전의 번영은 회복하지 못 하였고 지방의 거

66) 1400여명의 제자들은 受敎繼業者(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146인, 隨職加階者(직무에 따라 승계를 받은 자) 77人, 慕德歸化者(고승의 덕을 흠모하여 그의 문하에 들어온 자) 1100人, 先後師而沒世者(스승의 입적을 전후하여 입적한 승려) 70人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67) 『法泉寺』 2002, 17-19쪽, 강원문화재연구소.

68) 金龍善편, 「金德謙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116-118쪽.

69) 고려전기의 법상종의 동향은 신라시대와 같이 2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성 칠장사를 중심으로 한 정현계와 법천사를 중심으로 한 해린계이다. 정현계는 靈念-順眞-德謙-覺觀으로 이어지는데 영님과 덕점은 청주김씨 출신으로 정현계는 진표계 법상종의 전통을 이으면서 계행의 실천과 포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덕점의 경우와 같이 念彌勒佛하는 실천적인 면이 강하였다. 정현계는 이자겸의 란 이후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金南允, 1992, 「高麗中期 佛教와 法相宗」 『한국사론』 28, 137-138쪽.



대사찰만으로 만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상종은 미륵을 주존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법천사에는 미륵신앙이 상당히 성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천사는 고려 전기 법상종의 한 맥인 해린계 법상종의 본산으로 신라 이래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태현계 법상종을 이어와 미륵과 아미타신앙을 함께 수행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는 법천사에서도 대동소이하였을 것으로 당시 법상종의 종찰인 현화사의 경우 「玄化寺碑」 음기에 의하면 현종의 발원으로 彌勒菩薩會와 彌陀佛會를 매년 개설하도록 하였는데 彌勒菩薩會는 邦家の 鼎盛과 社稷의 益安을 축원하기 위하여 매년 4월 8일부터 3日3夜 개설케 하였고, 彌陀佛會는 顯宗 兩親의 명복을 추천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5일부터 3日3夜를 개설케 하였다.<sup>70)</sup> 미륵보살회는 하늘에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앙이 되었을 것으로 미타불회는 현화사를 창건한 현종 부모의 추선을 위한 정토신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즉 미륵은 국가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현세적인 것으로, 아미타는 死者의 명복을 비는 내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린의 직제자 韶顯의 경우 「金山寺 慧德王師碑」에 나오는 바와 같이 법상종 교학과 학맥을 중요시하고 「彌勒上生經」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철저한 계율의 수행과 經典讀誦, 彌勒稱名 念佛과 莊嚴 正行과 四弘誓願 懺悔 등 十善을 완전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교화가 아니라 승려자신의 도솔천 상생을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신앙기반은 넓지는 못하였고 귀족적 성향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1)</sup> 그의 스승 해린의 경우도 실천과 대중교화보다는 교학을 중시하고 미륵과 아미타불을 예념한다는 면에서 비슷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천사에는 신라 태현계 법상종의 전통을 이어 국가의 안녕을 축원하고 미륵보살이 수행하고 있는 도솔천 상생을 위한 미륵불 예념을 해하는 미륵전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死者追善을 위한 아미타전도 중요시설로 사원의 중앙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법천사 아미타전에 놓이기 위해 만들어진 戊子銘 光明臺, 懸爐, 香壇 등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한 용구였음을 보여준다.<sup>72)</sup>

70) “聖上又發心立願 爲祝邦家 鼎盛社稷 益安許令 每於春四月八日 起首限三日三夜 開設彌勒菩薩會 又立願爲欲追薦二親冥福 亦令每於秋七月十五日 起首限三月三夜 修設彌陀佛會”, 동국대 박물관편, 1985, 『新羅寶林寺普照禪師靈塔碑銘·高麗靈巖寺寂然國師慈光之塔碑銘·高麗玄化寺碑銘』 230-231쪽.

71) 金惠婉, 1995, 「高麗 前期의 彌勒신앙」 『申延澈教授 停年紀念 私學論叢』 539-542쪽.

72) 黃壽永편 『韓國金石遺文』 370, 415-417쪽.

## 7. 맺음말

지금까지 원주를 중심으로 한 고려전기까지 불교관계 사료를 모아 그 과정과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원주는 신라의 통일후 북원경으로서 5소경 중에 하나로 신라의 준왕경 역할을 하여 경주 출신 진골귀족들이 들어와서 경주에서와 같은 화엄 법상종의 교종의 불교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하대에 들어서자 중앙에서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졌고 하대 왕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김헌창이란이 일어났고 지방에서는 중앙통제력의 약화와 함께 불만농민층의 집단행동으로 총체적인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신라정부에서는 일단 중앙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府制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북원경도 북원부로 바뀌게 되고 그 범위가 고려 현종때 원주의 속현이 매달린 만큼 확대되었던 것이다.

의상의 화엄종은 중대왕권 이후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부석사를 중심으로 교학과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백산 부석사와 가까운 북원부지역에서도 의상의 손제자들이 포교활동을 함에 따라 신림과 절웅이 세달사에 머물게 되었고 세달사와 마주 보고 있던 원주 비마라사까지 화엄 10찰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인식될 정도로 의상의 화엄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원주의 화엄종은 의상의 학풍만 고집하는 부석사계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실천성이 부족하여 선종으로 전환한 선사들이 있었고 그 중 도현과 절충은 원주에서 활약하게 된다.

원주에서 활약한 선종의 승려는 도현과 절충, 충담이다. 특히 도현은 거둔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안락사에 경문왕의 누이 단의 장옹주의 요청으로 주지하면서 거둔사로 이름을 바꾸고 선종사찰로서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거대한 철불을 주조하여 세우고 불만농민층의 봉기로 신라정부에서 일탈조짐이 있던 원주지방의 사회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원주는 곧 양길과 궁예의 각축장이 되어 궁예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고려 왕건의 세력이 미치게 되자 왕건은 원주의 안정을 위하여 충담을 흥법사에 주지시켰고 이후 소실되었던 흥녕사도 고려왕실과 명주 충주 등 주변의 세력의 도움으로 재건되었다. 그리하여 원주권에는 신라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거둔사와 처음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았으나 재건에는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흥녕사 흥법사 등이 선종사찰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거둔사는 이후 주변의 회양원과 고달원이 부동선원이 되어 선종사찰이면서도 법안종풍을 갖게 된 것처럼 법안종사찰로 되었고 이어 의천의 천태종 개창에 천태종으로 흡수되었다. 거둔사는 고려 초에는 고달원과 회양원의 중간 위치에서 찬유와 궁양의 영향을 받은 지종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미 영월 사자산자와 충주 정토사에는 英俊과 弘法과 같은 법안종 승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종이 하산하기 전 적어도 광종대 후반기에는 禪敎一致思

想과 禪淨雙修의 법안종 사찰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법상종이 현종의 원찰인 현화사가 완성되자 왕실과 인주이씨 등 문벌 귀족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법천사는 이미 신라 하대 이래 법상종 사찰로서 판단이 설치되어 지역의 중심적 사찰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주 토호 출신인 해린도 법천사에서 유식학의 기반을 닦았다. 해린은 인주이씨 이자연의 6자 소현의 스승이 됨으로써 해린 입적 후 그의 추모 사업을 계기로 법천사에도 인주이씨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게 되었고 이자겸의 란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현계 법상종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자 법천사는 고려 법상종의 주류에서 탈락하게 되고 쇠락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천사는 원주 지방민들에게는 사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남한강의 홍원창과 인접한 대규모의 사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여관과 같은 사회시설로서의 기능은 계속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복원권의 불교는 신라 통일이래 고려전기까지 그 주도가 화엄종 선종 법안종 천태종 법상종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앙 불교계의 변화와 시간적 차이가 없는 오히려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주의 불교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소경으로서 신라 중심부의 불교 성향을 흡수하고 있었고 고려전기의 개경에서의 불교성향을 모두 소화하여 고려전기까지 불교사 중심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원주가 교통의 요지로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았던 요소가 작용하였을 것이고 수로로 개경과 연결되는 지리적인 여건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달사 조신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미륵과 아미타정토신앙의 모습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어 궁예와 같은 세력가의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었고 각파의 변화에 무리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는 고려 전기까지 원주지역에 철불을 비롯하여 거대한 미륵산 마애불 등 다수의 석조미륵상과 아미타상을 하나의 유파를 형성할 정도로<sup>73)</sup> 조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고 그 속에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염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의 열망이 망라되어 있었던 것이다.

73) 林玲愛, 2001, 위 논문.

## 제2주제

# 原州地域의 高麗時代 佛教彫刻

- 나말려초 석불과 철불을 중심으로 -

최 성 은

(덕성여대 교수)

- I. 머리말
- II. 羅末麗初의 철불과 석불
- III. 이후의 전개: 고려 중·후기의 조각
- IV. 맺는말: 원주지역 불교조각의 조각사적 의의

# 原州지역의 高麗時代 佛教彫刻

## - 나말려초 석불과 철불을 중심으로

崔 聖 銀 \*

### I 머리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주는 통일신라시대의 北原府(北原京)로 남한강을 따라 남쪽으로는 충주로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여주와 양평을 지나 개경으로까지 연결되는 수운의 要路上에 위치하고 있어 각지의 物産이 모이고 조세가 운반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었다.<sup>1)</sup> 신라북부의 행정중심으로 수백년간 신라의 골품관료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문화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다고 이해된다.<sup>2)</sup> 이후 중앙 집권이 약화되었던 나말려초기에는 梁吉과 같은 인물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던 근거지가 되었고, 후삼국이 병립하던 때에는 泰封을 세워 한반도의 중부지역을 장악했던 궁예정권에 의해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태조 왕건이 즉위한 뒤에도 原州의 호족 가운데는 왕건에게 도움을 주어 삼한공신이 되었던 元克猷 같은 原州元氏호족 등의 활동은 원주의 지리적,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sup>3)</sup>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정치, 경제면에서 불교 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원주지역에는 자연히 많은 사찰들이 세워지고 이에 따라 많은 불상들이 조성되어 봉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sup>4)</sup> 이러한 추정은 현존하는 오늘날 원주일대에 다수의 불상들이 전해오며 이

\* 덕성여대 교수

1) 고려시대의 원주에 대해서는 이인재, 「고려시대 원주의 행정체제와 원주인의 동향」, 『原州市史』(원주시, 2001), pp. 236~294; 同著, 「나말려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2001. 2), pp. 195~220 참조. 원주지역의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林玲愛,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美術史學研究』 228·229(한국미술사학회, 2001. 3), pp. 39~63; 同著, 「元祐5年(1090)銘 原州 立石寺 磨崖佛坐像 小考」, 『講座美術史』 12(1999), pp. 195~211; 김성찬, 「원주의 불교유적」, 『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강원도 원주시, 199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이인재, “고려시대 원주의 행정체제와 원주인의 동향,” p. 239.

3) 『고려사』 권 107 元傳條.

4) 원주 인근의 영춘현에는 의상계 화엄종 사찰로 일원이 『삼국유사』에서 열거한 華嚴十刹 가운데 하나인 毘盧羅寺가 있었다고 하며 玄溪山 居頓寺는 曦陽山門의 智證道憲이 住持하던(864~879) 사찰인 賢溪山 安樂寺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초 興法寺에는 봉림산문 審希의 제자로 태조의 왕사였던 眞空大師 忠湛(869~940)이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다. 또한 法泉寺는 고려중기에 융성했던 法相宗의 중심사찰이 되었다. 이인재, 「나말려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pp. 201~205, pp. 214~216.

불상들이 대체로 10세기 전반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원주지역출토 불상들 가운데 이들 나말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당시 원주지역의 불교미술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들과 주변지역의 불상들과의 연관성을 밝혀 원주지역 불교미술을 포함한 불교문화가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 II. 羅末麗初의 철불과 석불

### 1. 제1기 10세기 1/4분기 조각

국립춘천박물관 철조약사불좌상 원주지역에서는 이미 통일신라 9세기 후반부터 철불조성에 대한 기록이 보이며,<sup>5)</sup> 고려 태조 11년(928) 원주 山澗寺 철불에 대한 언급이 문헌에 전하는 것을 보더라도 일찍부터 철불이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sup>6)</sup> 오늘날까지 여러 구의 철불이 전해오고 있다. 현존하는 예 가운데 가장 조성시기가 이르다고 생각되는 철불로는 일제시대 原州郡 本部面 邑玉坪(옥뜰, 現 원주시 鶴城洞 정지뜰)<sup>7)</sup>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후 현재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철조약사불좌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철조약사불좌상은 사실적인 얼굴에, 그다지 넓지 않은 어깨가 둥글게 표현되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듯하다.<sup>8)</sup> 가사의 옷주름은 물결처럼 흐르는 듯 새겨져 있으며, 왼쪽 어깨 위에는 세모꼴의 가사장식이 오메가형의 주름을 만들고 있다. 다리 위에 새겨진 옷주름도 유려하고 결가부좌한 오른발 위를 덮고있는 옷자락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 철불을 고려초기 920~30년대에 주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광주철불(하사창리 철불좌상)이나 고려의 후삼국통일 직후인 930년대말~940년대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三和寺 철불좌상과 비교해 보면,<sup>9)</sup> 얼굴 모습이나 신체의 표현에서 다소 경직된 두 상에 비해 학

5) 한 예로 曦陽山門의 智證道憲이 鳳巖寺를 세우기 이전인 864년에서 867년 사이, 端義長翁主의 청으로 賢溪山 安樂寺로 옮겨와서 철조장육상을 조성하였는데, 이 안락사는 바로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玄溪山 居頓寺였다고 추정되고 있다. 李仁在, 「나말려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pp. 214~216.

6) “原州山澗寺鐵佛汗三日,” 『高麗史』 志 卷 8 五行 2;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 三國時代~高麗時代 -』(一志社, 1987), p. 229.

7) 『朝鮮古蹟圖譜』(조선총독부, 1918) 圖 3200; 이인영, “高麗時代 鐵佛像의 考察,” 『美術史學報』 2(1989. 10), p. 75.

8) 본고에서는 이후 학성동 철불로 부르도록 하겠다.

9) 삼화사철불에 대해서는 文明大, “元曉系 華嚴宗 本尊佛 問題와 三和寺 鐵盧舍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36(한국미술사학회, 2002. 12), pp. 69~96 참조.

성동철불이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조성시기가 10세기 초엽일 가능성이 크다.<sup>10)</sup>

원주시립박물관 봉산동석불좌상 학성동 철불과 재료는 다르나 매우 유사한 불상으로 봉산동 석불좌상이 전해온다. 봉산동석불좌상은 원주시 鳳山 아래의 鳳山洞에서 있다가 현재는 원주시립박물관으로 옮겨진 상이다.<sup>11)</sup> 이 석불좌상의 원 소재지였던 봉산동은 오늘날까지 여러구의 석불들이 전하고 있는 곳으로 이 일대의 불교가 盛하여 사찰들이 활발하게 경영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sup>12)</sup>

봉산동 석불좌상의 세부를 살펴보면, 아담한 체구의 佛身과 복판복엽의 상대 앙련좌로 장식된 팔각 연화대좌, 조각의 깊이는 낮으나 문양이 화려하게 새겨진 그림같은 광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부와 양 손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가슴아래까지 올려 지금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은 약합을 들었던 듯하다. 大衣 전면에 촘촘하게 새겨진 옷주름이 새겨져 있고, 왼편 어깨위에서 수직으로 대의를 고정하는 세모꼴의 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마치 물결처럼 출렁이는 세밀한 옷주름으로 가득찬 화려한 대의와 세모꼴 가사장식의 위쪽에 달린 매듭의 표현에서 지극히 섬세하고 현실화된 사실성을 엿볼 수 있다.

봉산동석불좌상과 앞의 학성동철불좌상은 삼각형의 가사장식, 상의 앞, 뒷면에 새겨진 옷주름의 새김, 결가부좌한 오른쪽 다리위의 옷자락이 2단의 층을 이룬 표현, 가슴높이로 손을 올려 약합을 든 모습까지 여러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같은 시기에 같은 工房에서 제작된 불상이라고 생각되는데<sup>13)</sup> 이 두 불상은 나말려초기 원주지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상들은 양식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桐華寺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과 鷲棲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 같은 9세기에 경주와 경북일원에서 유행하였던 불상유형을 따르고 있으나 둥근 어깨와 평평한 신체에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주름의 조각이 섬약해지고 도식적이며 팔각연화대좌에 새겨진 연화문과 부조에서 장식적인 매너리즘이 느껴져 시간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原州 주변의 조각 가운데 형성 상동리 석불좌상과 비교해 보아도 신라하대의 조각과 이른바 나말려초라고 하는 10세기초 조각 사이의

10) 山澗寺철불은 이 학성동 철불같은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1) 이 상에 대해서는 김성찬, 앞의 글, p. 173; 林玲愛,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pp. 47~49; 崔聖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 - 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 『역사와 현실』 44(한국역사연구회, 2002. 6), p. 44~48 참조.

12) 과거에 原州川을 따라 이 곳 봉산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하여 배말(배마울) 혹은 舟村이라고도 불리었던 것으로 보면 原州川을 통해 漕運이 이루어졌던 水路에 접해있어 이 일대가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3) 林玲愛, 앞 논문, p. 50. 따라서 두 상에서 각각 훼손되거나 잃은 부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차이가 드러난다. 즉, 前述한 2구의 원주불상은 신라하대 불상들보다 더 사실적이고 조각이 세밀하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면을 지녔고 이와 동시에 지나친 섬세함과 장식적인 세부표현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각의 입체감이나 조형적인 긴장감은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흡사 초상조각과 같이 상당히 사실적이면서도 세속화된 조각양식이 이 지역에 알려졌을 개연성이 상정된다.<sup>14)</sup>

학성동과 봉산동 불상의 어깨에서 내려오는 세모꼴의 가사장식은 나말려초기의 여러 불상들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해인사 마애불입상, 장흥 용화사 석불좌상 등으로 이 상들의 조성시기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초에 걸쳐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학성동 철불과 봉산동 석불의 조성시기 추정에 도움을 준다. 흥미있는 것은 이 가사장식이 표현된 상들이 원주와 가깝게 연결되는 여주 일대에 3구나 전해온다는 점이다. 여주 계신리 마애불입상, 여주 포초골(금사면 대성사) 석불좌상, 여주 도곡리 석불입상 등은 조각이 섬세하고 사실적이거나(계신리상), 불안의 느낌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불신의 양감이 풍부한 점(포초골, 도곡리상)에서 원주지역의 불상들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으며, 세모꼴의 가사장식이 유독 원주와 여주일대의 불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당시 이 지역에서 유행했던 표현요소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도상적인 면에서도 학성동철불과 봉산동석불상은 독특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약사불좌상은 결가부좌한 다리에 얹은 손위에 약합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을 들어 인계를 짓거나 무릎에 내려 항마촉지인을 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다.<sup>15)</sup> 그런데 앞의 두상은 한 손을 가슴 가까이 들어올려 약합을 받치고 있는 약사불상으로 지금으로서는 경주 남산 윤을곡 마애삼불 가운데 둥근 보주형태의 지물을 올려들고 있는 불상이 있고 문경 봉정리 월봉산에 마애약사불좌상의 예가 있는데<sup>16)</sup> 이러한 약사불의 도상이 나말려초기에 원주지역에 알려져 나말려초기에 유행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성동철불과 봉산동석불에서 보이는 여러 요소들 - 약사불의 도상, 가사장식의 표현, 사실

14) 또한 조각양식에서 엿보이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은 북원소경이었던 이곳에 수백년간 신라의 골품 관료들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원주의 지역성과도 관계가 있을 듯하다. 崔聖銀, “高麗前期 中部地域의 石佛彫刻,” 『美術資料』 69(국립중앙박물관, 2003. 10), p. 40; 이인재, “고려시대 원주의 행정체제와 원주인의 동향,” p. 239.

15) 경주 남산 미륵곡(보리사) 석불좌상의 광배에 부조된 약사불좌상이나 굴불사지사면석불의 동면 약사불좌상, 경주 윤을곡 삼불상 가운데 약사불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약사불상에 대해서는 劉根子, “統一新羅 藥師佛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03(1994), pp. 77~110 참조.

16) 이 상 역시 한 손을 들어올려 약합을 쥐고 있는 형식으로 약사불상으로서 미소 띤 자비스러운 얼굴에, 머리와 육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두부표현, 둥근 어깨, 촘촘하게 새겨진 옷주름 등에서 앞의 원주 약사불상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나말려초기 원주지역과 문경지역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적이고 세속화된 분위기, 세밀하고 장식적인 세부표현 - 등은 기존의 신라하대의 조각전통을 토대로 하여 당시 중부지역에 알려진 도상과 양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당시 지리적으로 태봉 및 고려 지배지역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정치, 문화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였을 원주지역의 조각에서 보이는 새로운 조각경향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이다.

## 2. 제2기 10세기 2/4분기 조각

앞에서 살펴본 두 불상에서 보이는 조각양식은 원주지역의 고려초기 조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의 정치적인 변화가 彫刻工房의 체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의 불상들과 가깝게 비교될 수 있는 상으로 원주 주촌평(봉산동)에서 중앙공원을 거쳐 원주시립박물관으로 옮겨온 이른바 일산동석조비로자나불좌상(두부결실) 2구와 원주 본부면(태장동 영천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비로자나불좌상, 본지전동(우산동 호저면 일대)에서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져온 비로자나불좌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원주시립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이 가운데 원주시립박물관의 일산동 석불상은 현재 두부를 잃었는데, 『조선고적도보』에는 두부를 잃기 전의 사진이 실려있어 등글고 양감이 있는 얼굴을 희미하게 볼 수 있다. 이 상들을 앞의 봉산동 석불과 비교해 보면, 등글게 처리된 어깨와 팔각 연화대좌의 형태, 번잡하게 느껴질 만큼 촘촘하고 세밀하게 새겨진 가사 옷주름에서 유사함을 보일 뿐 아니라 결가부좌한 오른쪽 다리위의 옷자락이 2단의 층을 이룬 표현까지 일치한다. 한편, 봉산동 상에서 표현된 세모꼴의 가사장식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내의(승각기)를 묶은 리본모양의 매듭이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본부면(전영천사지)출토 석불상과 본지전동(우산동, 호저면일대)출토 석불좌상은 옷주름 등 세부표현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조각유파에 의한 동일한 유형의 불상이라고 생각된다. 세부를 살펴보면, 어깨가 등글고 좁은 佛身 위에는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었고, 낮은 육계가 표현된 나발의 머리에, 양 뺨에 살이 많은 둥근 얼굴과 이목구비는 학성동 철불의 얼굴과 흡사하다. 쇠와 돌이라는 재료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의 학성동이나 봉산동 상의 전통이 조금씩 변모하며 이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석불상들에서는 학성동철불이나 봉산동 석불에서 보이는 다리 위의 옷주름이 2단으로 새겨진 표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전술한 4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옷주름은 여전히 세밀하면서 大衣의

장식의 표현은 사라지고 그 대신 內衣(승각기)의 리본형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주시립박물관의 2구는 가사장식은 없지만 다리위를 덮은 이중의 옷자락표현에 있어서는 봉산동 석불이나 학성동철불과 유사하고, 이러한 옷자락 표현이 국립중앙박물관의 2구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조성시기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조각유파의 차이 때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불상의 얼굴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前者쪽일 것으로 생각한다면 원주지역의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조성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석불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 불상들은 4구 모두가 智拳印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으로서 팔각연화대좌의 중대석에 사자가 새겨져 있는 이른바 “7사자 연화대좌”<sup>17)</sup> 유형이 아닌 대좌의 지대석의 팔각면에 사자가 새겨진 유형이라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고려초기에 원주지역에서 이처럼 여러 구의 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통일신라 이래 화엄종, 선종의 융성했던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원주의 석불상들에서 물결모양의 주름이 촘촘하게 표현되는 것은 나말려초의 불상들에서 넓은 띠모양의 주름이 일반적으로 유행하였던 것과 다른 양상인데, 이는 일부 신라시대 조각에서 보이는 평행밀집문이 이 지역 불상에서는 고려초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3. 제3기의 조각들 - 10세기 중엽

매지리와 신선암 석조보살입상 앞에서 살펴본 철불과 석불들은 약사와 비로자나불의 예로서 원주지역 불교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상들인데, 원주지역에는 이밖에도 독특한 유형의 석조보살입상들이 전해오고 있다. 원래 저수지 상류 논둑 위에 있다가 현재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의 거북섬으로 옮겨온 매지리 석조보살입상은 머리에 높은 寶髻를 올리고 머리 前面을 곡선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양 뺨이 통통한 여성적인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가운데 몰려있다. 몸에는 통견식의 佛衣같은 형태의 천의를 입고 있는데 오른손은 들어서 시무외인과 같은 수인을 결하고 있다. 거의 같은 유형의 보살상으로 원래 원주 화천리(봉산동)에 있던 상으로 현재 신선암입구에 서있는 보살입상은 원뿔처럼 높은 솟은 보계와 머리 사이에 턱이 있어 원래 금속제 寶冠을 보계 위에 씌워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얼굴부분은 많이 훼손되었으나 동그랗고 예쁜 여성적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역시 통견식 가사같은 천의를 입었고 오른손은 올려서 꽃으로 생각되는 지물을 들고 있다.

17. 7사자 연화대좌에 대해서는 朴亨國, 「ヴァイローチャナ佛の圖像學的研究」(東京: 法藏館, 2001), p. 257; 文明大, “밀양 얼음골 天皇寺 獅子座石佛坐像略考,” 「講座 美術史」 6(한국미술사연구소, 1994), pp. 51~56 참조.

신라하대의 보살상 가운데 이 원주 보살상들처럼 佛衣형태의 천의를 입은 예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구의 석조보살입상은 고려초기에 나타나는 불교미술의 도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신라지역의 예로는 높은 고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금릉 광덕동 석조보살입상이 전하고 있고, 양식적으로는 차이가 크지만 형식면에서 유사한 예로는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과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을 꼽을 수 있겠는데, 이 상들은 삼존불상의 협시보살상으로서가 아니라 독존예배상으로 조성된 이른바 여래형 보살상으로서 帝王의 모습으로 표현된 미륵보살입상이라고 이해된다. 조형적으로 지방적인 조각양식을 드러내고 추상화가 진행된 대조사와 관촉사 보살입상이 대체로 광종의 재위연간인 10세기 중, 후반무렵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므로<sup>18)</sup> 이들 원주보살상들의 조성시기는 이보다 이른 10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원주지역 보살입상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여래형 보살상이 중부지역에서도 원주지역에서 일찍 나타났다는 점과 이들을 통해서 원주지역의 미륵신앙과 法相宗의 융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은 형식의 보살상임에도 충청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원주지역 불교조각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철불좌상들 원주시 본부면 읍옥평(정지뜰)에서 일제시대에 서울로 가져온 국립중앙박물관의 철불좌상 3구는 지금까지 원주지역 철불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세 구의 철불은 모두 향마촉지인을 걸하고 몸에 달라붙은 듯한 얇은 대의를 우견편단식으로 착의한 불좌상으로 거의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sup>19)</sup> 이 철불들은 육체가 낮은 나발의 머리에, 턱이 짧고 네모진 사각형의 얼굴로, 수평으로 긴 눈, 콧날이 좁고 입술은 얇고 입꼬리가 가볍게 올라가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 날카롭게 흠을 판 듯한 옷주름 표현이나 제작과정에서 목 아래 삼도 밑과 허리아래부분, 팔목 윗부분에서 外型을 이은 점, 특히 왼팔이 접히는 부분에 리본형태의 주름이 보이는 것은 이 불상들이 같은 工房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다.<sup>20)</sup> 그런데 이 철불들은 앞에서 살펴본 원주지역의 철불이나 석불들과는 양식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원주지역 불상들이 대체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양감이 풍부한 인간적인 면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철불들은 딱딱하고 긴장된 얼굴표현은

18) 文明大, 「大鳥寺 石彌勒菩薩立像 - 學術調査 및 保存處理方案 -」(한국미술사연구소·扶餘郡廳, 1999), pp. 28-33 참조

19) 朝鮮古蹟圖譜 卷 5, 圖 1997, 1998, 1999. 邑玉坪 철불 가운데 2구의 내부에 “卜印”이라는 墨書銘이 있고 이 목서옆에 각각 “貳” “三” 이 목서되어 있다고 한다. 姜友邦, “統一新羅 鐵佛과 高麗 鐵佛의 編年試論 - 忠南 瑞山郡 雲山面의 鐵佛坐像과 雲山面 普願寺址 丈六鐵佛坐像을 중심으로 -, ” 美術資料 41(1988), p. 26의 註) 28 참조.

20)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美術史』 8(1996), pp. 31-35 참조.

물론 佛身에서 나타나는 과장된 건장함, 단순화된 옷주름 처리 등에서 볼 때, 다른 시기에 다른 범본을 바탕으로 조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工房에서 주조된 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이 철불들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철불상이 원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산 普願寺에서도 봉안되었다는 사실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산 보원사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철불상은 앞의 원주출토 철불들에 비해 규모가 매우 커서 비례감이 좋지 않고 어깨와 가슴의 양감도 줄었으며 佛顔의 미소도 사라졌지만 조형감과 도상, 양식 등에서 앞의 원주출토 철불들과 동일하며 특히 왼팔이 접히는 곳에 리본 형태의 주름이 새겨져 있는 점에서도 일치하고 있어 동일유파의 조각가집단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원사지철불은 화엄종 승려 坦文의 發願으로 광종이 즉위한 해인 949년경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sup>21)</sup> 앞의 세구의 철불들의 조성시기도 비슷한 시기인 10세기 2/4분기말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원사지 철불은 光宗을 위해 주조되었고 광종의 외가인 충주유씨 호족의 근거지인 충주가 철의 산지로 유명하므로<sup>22)</sup> 이 철불들은 충주에서 생산된 철을 이용하여 원주의 鐵匠집단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sup>23)</sup> 반면에 충주가 이름난 철의 산지로 유능한 철장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므로<sup>24)</sup> 충주의 철장들이 제작한 불상들이 원주나 서산으로 옮겨졌거나 이들이 현지에 가서 작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식적인 면을 기초로 하여 본다면 기존의 원주지역 불상양식과 상통하지 않으므로 원주지역 철장들이 제작하였다고 보다 충주지역의 철장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 [法印國師寶勝塔碑] (978)에 의하면 탄문은 광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왕건과 광종의 외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광종이 즉위하자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석가삼존상을 주조했는데 이 불상이 바로 보원사지 철불좌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도). 姜友邦, 앞의 글, pp. 1~31.

22) 劉兢達과 영월지역 獅子山門과의 밀접한 관계도 고려된다. 영월 獅子山 禪門의 本山인 興寧寺의 澄曉大師碑文에는 광종의 즉위 전 이름이 보이고 있다. 鄭永鎬, “新羅 獅子山 興寧寺址 研究,” 白山學報 7(1960. 12), pp. 25~104.

23) 김혜완, “普願寺鐵佛의 조상 - 고려초 原州鐵佛과 관련하여 -,” 『史林』 14(首善史學會, 2000, 가을), pp. 9~16 참조.

24) 충주의 鐵匠이 다른 지역까지 가서 활동했다는 기록은 양평 菩提寺의 大鏡大師 麗嚴의 비문(陰記 942년)에 “鐵匠 仲原府(忠州) 香淵”이라고 충주지역의 장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양평지역의 佛事에까지 충주지역의 철장이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각연사 통일대사 비문(958~960)에 보이는 철장 富島도 충주와 괴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장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보리사 대경대사 현기탑비,”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譯註篇(혜안, 1996), p. 67; 한국역사연구회, “覺淵寺通一大師塔碑”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譯註篇, p. 327.

## 이후의 전개 : 고려 중·후기의 원주지역 조각

앞에서 살펴본 원주지역 불교조각에서 발견되는 ‘양감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부드러운 조형성은 당시 원주를 중심으로 東으로는 강릉(溟州), 서쪽으로는 여주와 안성 등, 주변지역의 조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강릉 寒松寺址와 神福寺址의 석조보살상이나 여주의 여러 석불상들, 안성 奉業寺址 석불입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일대의 불상들은 유사한 양식의 틀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원주가 통일신라시대 이래 이 일대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석불조각의 전통은 이 일대의 고려 중, 후기의 조각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그 한 예로 횡성 상동리에서 옮겨온 읍하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아담한 불신과 동그랗고 여성적인 童顏의 얼굴표정에서 원주지역 석불조각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 元祐 5년(1090)의 銘文이 조사된 치악산 立石寺 마애불좌상에서 보이는 양 뺨에 살이 많은 둥근 얼굴모습에서도 부드러운 양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龍雲寺址에서 원주시립박물관으로 옮겨온 석조나한좌상은 두견(풍모)을 쓰고 두 손을 마주 대어 持物을 들고 있는 나한상으로 추정되는데, 얼굴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둥글고 온화했을 얼굴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며 신체부분과 부드러운 양감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요소는 최근 영월 창녕사지에서 발굴되어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오백나한상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얼굴과 신체가 단순하게 추상되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양감을 유지하고 있는 각 나한상들의 표현은 원주를 중심으로 했던 나말려초기의 불상양식이 고려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 맺는말 : 원주지역 불교조각의 조각사적 의의

지금까지 현존하는 나말려초기 불상들을 중심으로 원주지역의 불교조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말려초기에 중부지역이 태봉이나 고려의 영역내에서 정치, 문화적인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자 원주는 통일신라시대에 비해서 지역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불교사찰의 창건이 활발하게 되어 새로운 佛事가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현존하는 다수의 불상들을 통해서도 입증되는데, 당시 원주지역에서 유행했던 불상양식은 신라하대의 조각경향 가운데 아름답고 여성적이며 온화한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경주와 경북일원의 조각전통을 기초로 하되 더욱 사실적이고 섬세하며 장식적인 경향으로 진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볼 수 없던 인간적인 불상은 신라하대 불상의 현실화되고 세속화된 양식에서 한층 더 심화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의 충주, 괴산, 광주 등지의 불상양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므로 원주지역 조각의 특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원주지역의 불상양식은 주변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남한강을 따라 연결되는 여주 일대의 석불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도상적인 면에서 비로자나불상이 다수 전하고, 보수적인 경주지역 불교미술계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약사불의 도상이 나타나며, 나말려초기 미륵신앙의 성행을 알려주는 미륵보살의 유형이 원주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당시 원주지역 불교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고려사회에서의 원주의 位相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주제

# 原州 法泉寺址 發掘調査 成果와 意義

지현병·윤석인

(강원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주변의 불교유적
- III. 법천사의 문헌적 검토
- IV. 조사내용
- V. 맺는말 - 조사성과와 의의

# 原州 法泉寺址 發掘調査 成果와 意義

지 현 병\* · 윤 석 인\*\*

## I 머리말

원주 法泉寺址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 서원말에 위치하며, 강원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sup>1)</sup> 寺域內에는 智光國師玄妙塔碑(국보 제 59호)를 비롯하여 幢竿支柱(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20호)와 탐비전지(건물지 3동), 愚潭 丁時翰선생의 사당지<sup>2)</sup>가 남아 있다.

법천사지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는 1938년 日人학자인 小川敬吉(1882~1950)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sup>3)</sup>, 1965년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이 탐비전지 일대에 대한 보수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sup>4)</sup> 있다. 이 후 현묘탑을 비롯한 석물 그리고 지광국사 海麟과 관련된 단편적인 글<sup>5)</sup>이 일부 소개되었으나 법천사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할만한 연구성과는 없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법천사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保護와 保存管理를 위해서 법천사를 遺蹟公園化하고 나아가 원주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선행작업으로 법천사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sup>6)</sup>, 93년부터 현재까지

\*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1) 현재 법천사지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신청을 올려 문화재청에서 심사 중에 있다.
- 2) 우담(愚潭)정시한(丁時翰)선생(1625~1707)은 유학자로 법천에 살면서 후진양성을 위해 講學에 힘썼던 인물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山中日記』로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면서 보고 느낀대로 기록한 일기인데, 당시의 寺刹, 書院, 祠宇, 名勝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사료로써 가치가 높다.
- 3) 법천사지의 지적도와 탐·비전지를 정밀 실측한 도면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다.
- 4) 考古美術同人會, 1966. 「高麗法泉寺智光國師塔碑殿址調査概要」, 『考古美術資料』第十一輯.
- 5) 金東賢, 1965. 「原城 法泉寺址發見 石燈火舍片」, 『考古美術』第六卷 第三・四號.  
金禧庚, 1965.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의 舍利孔」, 『考古美術』第六卷 第十・十一號.  
秦弘燮, 1968. 「法泉寺址 石造光背」, 『考古美術』第九卷 第十號.  
李榮姬, 1986.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李在俊, 1995. 「옛 黃驪縣의 大刹 法泉寺址」, 『한국의 폐사』, 한국문화사, 291~307쪽.  
金南允, 1996. 「高麗 前期의 法相宗과 海麟」, 『江原佛敎史研究』, 小花, 113~147쪽.  
韓基汶, 1998. 「高麗史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李智冠, 2000.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佛敎文化研究院.  
原州市史編纂委員會, 2000. 「原州市史」 역사편, 原州市, 269~273쪽.  
이종목, 2000. 「原州 法泉寺와 柳方善」,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 6) 原州郡, 1992. 「法泉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 報告書」.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법천사지 발굴조사는 2001~2002년도 문화재보호구역(61,876㎡, 18,717평)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sup>7)</sup>를 토대로 1차 6개년에 걸친 중장기 발굴조사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차적인 발굴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구역은 모두 5구역으로 구분하였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3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구역은 탐비전지 일대인 I 구역을 시작으로 III구역까지 약 1,800여 평에 대한 전면 확장조사로 이루어졌다.<sup>8)</sup> 조사결과, 총 18동의 건물지를 비롯하여 우물지, 석축, 문지, 배수로, 담장지 등의 다양한 유구가 시기를 달리하여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에서는 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 高麗, 朝鮮前期까지 해당되는 기와류, 도자기류, 석조물, 금속류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 주변의 불교유적

원주지역에는 법천사지를 중심으로 南漢江과 蟾江流域에 분포한 대표적인 寺刹로는 居頓寺址와 興法寺址가 있다. 이 둘 사찰들은 원주지역 불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3대 중심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사찰유적들이 다수 조사되었지만<sup>9)</sup>, 본 글에서는 위의 두 유적만을 선정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거둔사지(居頓寺址)

거둔사지는 事蹟 제168호로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59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사역내에는 신라말의 양식으로 추정되는 三層石塔(보물 제750호)과 圓空國師勝妙塔碑(보물 제78호)가 자리잡고 있으며, 사지의 북편 산사면에는 圓空國師勝妙塔(보물 제190호)<sup>10)</sup>址가 남아

- 7) 1차 시굴조사는 문화재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유구 확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조사지역 전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인 도시랑이 마을과 장들 마을에서도 유구와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법천사의 사역범위는 상당히 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8) 2차 발굴조사는 I 구역을 대상으로 2003년 3월3일부터 동년 8월28일까지 총 150일간 이루어졌으며, 3차 발굴조사는 III구역을 대상으로 2003년 9월3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총 120일간 이루어졌다.
- 9) 원주지역에 대한 불교유적 조사에서는 사찰 12건, 사지 26건, 불상 11건, 부도·석탑 및 그 석부재 24건, 탐비 및 그 부재 유물 4건, 기타 당간지주 등 불교관련 유적이 7건 등 총 84건이 확인되었다(原州市·江原郷土文化研究會, 1997. 『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 147쪽 참조).
- 10) 이 탑은 일제강점기 때 서울의 한 일본인 주택으로 반출되었다가 1948년에 景福宮 정원으로 이전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있다. 그리고 사지 남편의 폐교된 분교 운동장에는 당간지주로 추정되는 긴 석재 1점이 있다.

이 사지는 원주시에서 거둔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86년에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sup>11)</sup>,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한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sup>12)</sup>, 2003년까지 유구를 포함한 석탑의 정비·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거둔사지의 가람은 현재 노출된 유구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에는 동-서향의 石築이 축조되어 있고, 석축 중앙상면에는 中門址가 있으며, 중문지 좌우에 회랑지가 동서로 나아가 다시 북으로 꺾여 講堂址와 연결된다. 중문지 북편으로는 삼층석탑이 위치하고 있다. 삼층석탑 뒤에는 전면 6間, 측면 5間の 金堂址가 있고 내부 중앙에는 높이 약 2m의 佛臺座가 남아있다. 금당지의 礎石은 고맥이와 원형주좌가 마련된 석재를 사용하였다. 금당지 동편 약 100m지점에는 圓空國師勝妙塔碑가 있으며, 금당지 뒤로는 강당지가 있다.

圓空國師는 太祖 13년(930)에 출생하였는데, 俗姓은 李氏이고 全州人이다. 8세 때는 舍那寺에 있던 印度僧 弘梵三藏에게 출가하였으나, 흥범의 귀국으로 廣化寺의 景哲和尚에게 修業했다. 定宗 원년(946) 17세에는 靈通寺에서 受戒를 받았고, 光宗 4년(953) 24세 때에는 曦陽山의 迥超禪師를 찾아갔으며, 光宗 6년(955)에는 驪州 高達院의 證眞大師 璨幽(869-958)가 꿈에 나타나 중국유학을 권유함에 따라 중국 吳越에 가서 永明寺의 延壽禪師를 拜謁하고 心印을 받았다. 光宗 12년(961) 32세 때에는 國淸寺로 옮겨 淨光大師에게 大定慧論으로서 天台교리를 배웠다. 39세 때에는 僧統 贊寧과 天台縣宰 任埴의 부탁으로 傳敎院에서 大定慧論과 法華經을 강의했다. 41세에는 다시 꿈에 나타난 찬유의 종용에 따라 귀국하여 光宗의 환대를 받고 大師가 되어 金光禪院에 거주하였으며, 46세 때는 重大師가 되고 磨納袈裟를 받았다. 景宗 代에는 三重大師가 되고 水晶念珠를 하사 받았고, 成宗 初에는 積石寺로 이주한 후 號를 慧月이라 하였다. 穆宗 代에는 해마다 왕의 보살핌을 받았고, 禪師가 되어 佛恩寺 護國外帝釋院 등의 住持를 역임했다. 顯宗 代에는 大禪師가 되고 廣明寺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法號를 寂然이라 하였으며, 顯宗 4년(1013) 84세에는 王師가 되고 많은 물품을 하사 받았다. 顯宗 9년(1018)에 玄溪山 居頓寺에 하산하고 入寂하니 世壽가 89세이고 法臘이 72세였으며, 圓空國師로 追贈되었다. 塔碑는 국사의 입적 후 7년이 지난해인 顯宗 16년(1025)에 건립되었다.

거둔사지는 4차에 걸친 발굴조사와 정비가 있었지만, 거둔사의 전반적인 유적의 성격을 규명할 만한 세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둔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정밀발굴조사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차에 걸친 발굴조사는 모두 시굴조사의 성격으로 트렌치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기회가 된다면, 층위적으로

11) 原城郡, 1986. 『居頓寺址 地表調査報告書』.

12)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居頓寺址』發掘調査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14.

확인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의 시기별 중복관계를 확인하면서 創建期부터 廢寺時期까지 해당되는 거돈사의 모습을 정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 2. 흥법사지(興法寺址)

흥법사지는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사지는 동편에서 서편으로 향하고 있으며, 남편에 인접해서는 蟾江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建登山<sup>13)</sup>이 보인다.

사지 前面인 동편에는 높이 약 2.4~3.6m의 축대가 약 50m 남아 있고 중앙에는 “凸” 자형의 돌출부가 마련되어 출입 階段과 中門址 입구로 보여진다. 축대에 사용된 돌은 모두 자연 석으로 巨石이 많이 보이고 현존 상태가 양호하다. 추정 중문지 서편으로는 고려시대의 양식인 三層石塔(보물 제464호)이 있고, 석탑에서 서북편 약 30m 지점에는 眞空大師塔碑(보물 제463호)의 龜趺와 螭首가 남아 있으며, 碑身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碑文은 太祖 王建이 친히 글을 짓고 崔光胤에 명하여 唐 太宗의 글씨인 行書體로 集子토록 하였다. 석탑을 중심으로 중심사역 내에서는 금당지와 강당지를 비롯한 건물지의 흔적이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1929년 日人학자 小川敬吉의 출장복명서에 기록된 스케치 도면을 보면, 당시 석탑 뒤에는 초석이 일부 남아 있어 金堂址로 파악하였고, 금당지 서편의 현 민가 뒤에 축대가 마련된 지역을 講堂址로 표시했다. 또한 석탑을 기준으로 서북쪽 약 200m지점에서는 眞空大師塔址<sup>14)</sup>가 확인되었고, 현재 이 탑(보물 제365호)은 경북궁내 정원에 石棺과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외 중심사역 외곽의 우물지 3개소를 비롯하여 민가와 중심사역 내에는 탑재와 초석, 石燈의 하대석 등이 남아 있다.

흥법사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高麗史』<sup>15)</sup>, 『東國輿地勝覽』<sup>16)</sup>에서 사찰이 조선전기까지는 法燈을 밝히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중기 이후의 『梵宇攷』와 『伽藍考』 등의 내용에서는 흥법사가 이미 廢寺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흥법사의 관련 기

13) 구라우와 너그네 북쪽에 있는 해발 260m의 산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올랐다고 해서 건등산이라 한다. 후삼국시대 건등산에서는 왕건이 진을 치고 있었고 견훤은 궁촌리에 산성을 쌓고 있었다고 전한다(原州市, 2000 『原州市史』 민속문화재편, 589쪽.).

14) 原州市, 2000. 『興法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134~136쪽.

15) 『高麗史』 世家, 太祖 23年條.

“秋七月王師忠湛死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王親製碑文”

16) 『東國輿地勝覽』 卷46, 原州牧 佛宇條.

“興法寺在江原道原州建登山寺有高麗太祖製其文命崔光胤集唐太宗書模刻李齊賢嘗曰辭義雄深偉麗如玄圭亦揖讓廊廟而字大小真行象間若鸞漂鳳泊氣吞象外眞天下之寶也”

록에서 볼 때, 사찰의 규모 또는 창건기, 폐사시기 등 직접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탑비편에서 眞空大師 忠湛의 행적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된다.

羅末麗初의 禪僧으로서 태조 왕건의 王師로 추앙을 받았던 진공대사는 흥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사세를 크게 융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사 입적 후 왕건이 직접 탑비문을 親筆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고려 초 원주지역에서 흥법사의 寺格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법천사의 문헌적 검토

법천사는 법상종의 지방 중심사찰로서 고려 초기부터 중요성을 갖는 사찰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창건과 폐사에 관한 자료가 전하는 것이 소략하여, 그 존속시기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高麗史』를 포함한 몇가지의 歷史書와 地理誌에서 일부 편린들을 찾을 수 있으나 매우 적고, 智光國師玄妙塔碑의 내용이 해린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법천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일부 내용이 전하고 있으나 조선초기의 유학자들에 관한 것이 있을 뿐이다. 후대의 자료들은 이러한 내용을 재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법천사의 伽藍配置나 法脈을 밝혀줄 획기적인 자료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법천사는 725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sup>17)</sup> 928년 유가종의 釋超가 법천사에서 賢叡律師에게 戒를 받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되는 최초의 기록이다.<sup>18)</sup> 이 시기에 수계를 할 수 있는 戒壇이 있었다는 것은 법천사가 이미 寺格을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32년에는 법상종의 고승이었던 鼎賢이 주지로 부임하는 것으로<sup>19)</sup> 보아 이 당시에 법천사는 법상종계의 사찰로 다시금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법천사의 僧衆이 동요하자 德謙을 보내 진정시켰다는<sup>20)</sup> 것으로 보아 법천사가 대단한 사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해린은 지광국사현묘탑비에 의하면 991년경 법천사<sup>21)</sup>에서 머물던 寬雄대사에게<sup>22)</sup> 수학하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76쪽과 한국역사연구회편,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해안, 444쪽에서 725년(성덕왕 24)에 창건되었다고 하였으나 典據는 밝히지 않았다.

18) 김혜원 역, 1996. 「지곡사 진관선사 오공탑비」,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해안, 444쪽.

19) 許興植, 1984. 「七長寺慧紹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490쪽.

20) 許興植, 1984. 「金德謙墓誌銘」,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694~698쪽.

21) 碑文에서 寬雄이 머물던 寺名은 法阜寺이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法阜寺와 法泉寺 두개의 寺名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대체로 法阜寺와 法泉寺를 같은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고 안화사 등의 주지를 거쳐 국사가 된 후 1067년에 국사의 신분으로 법천사로 은퇴하므로 법상종의 중심 사찰로 더욱 번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법천사는 1146년에 觀興가 주석하며<sup>23)</sup> 1160년에는 毅宗이 행차하였고<sup>24)</sup> 1164년에 覺悅가 주석하는 것으로<sup>25)</sup> 보아 법천사의 법등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金就礪(?~1234: 고종21)는 거란병과 전쟁을 치르면서 황려현의 법천사에 이르렀다는<sup>26)</sup> 기사가 있어서 이 당시에도 법천사는 경영되고 있었으며 조선초기에도 柳方善<sup>27)</sup>이 한명회·서거정·권람 등을 가르치고, 이들이 탐에 詩를 써놓았다고 한다.<sup>28)</sup> 이러한 기록은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는 법천사의 법맥이 이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許均의 『遊原州法泉寺記』에는 廢寺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1609) 가을에 휴가를 얻어와서 얼마동안 있었는데 마침 智觀스님이 墓庵으로 나를 찾아와 “일찌기 기축년(1589)에 법천사에서 1년을 거주하였다” 고 하므로 가보고 싶은 흥미가 일어나 지관을 이끌고 일찍 길을 나섰다... . 난리(譯註:임진왜란)에 불타서 다만 터와 무너진 주춧돌이 토끼와 사슴이 다니는 길에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sup>29)</sup>

이로 보아서 법천사는 지관스님이 머물던 1589년까지는 존속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허균이 답사하는 1609년에는 폐사된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쓰여지는 각종 지리지에도 법천사가 증창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폐사

22) 寬雄대사는 누구인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그는 법천사에 머물다 개성으로 옮긴 후 자신의 제자로 들어온 해린을 고려 역대 임금의 眞影을 보관하던 海安寺의 俊光方丈에게로 출가시키고, 법천사로 돌아와 해린을 다시 만나 이름을 海麟에서 海麟으로 고쳐준다. 이는 관웅대사의 신분적 위치가 작지 않았으며, 법천사와 계속하여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3) 許興植, 1984. 「證智首座觀興墓誌」,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758~759쪽.

24) 新書苑, 1992. 『北譯 高麗史』 卷 第18 世家 毅宗2, 339쪽.

25) 『高麗史』 卷18, 世家 毅宗 18년 3월, 20년 4월, 21년 4월.

26) 新書苑, 1992. 『北譯 高麗史』 卷 第103 列傳 第16, 161~176쪽. 고려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彦陽. 음서로 正衛가 되어 東宮衛에 배속되었으며 이후 장군이 되어 동북계를 맡아 지켰고 대장군에 발탁되었다. 몽고의 공격을 받아 국경을 넘어오는 거란군을 수차례 크게 무찔렀다.

27) 柳方善(1388: 우왕14~1443: 세종25)은 호가 泰齋이며 1405년(태종5) 國子司馬試에 합격하였다. 1409년 아버지가 민무구의 옥사에 관련된 것에 연좌되어 청주에 유배되었다가 1415년 풀려나 원주에 지내던 중 참소로 영천에 유배되었다. 변계량·권근 등에게 수학하였고 영남성리학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영천 松谷書院에 제향되고 저서로 태재집이 있다.

28) 민족문화추진회, 198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6권, 15쪽.

29) 許均, 「遊原州法泉寺記」, 『惺所覆瓿藁』.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1721년에는 법천사 터에 丁時翰(1625~1707)의 사당인 廣巖祠가 지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임진왜란으로 폐사되고 중창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IV. 조사내용

법천사지 발굴조사는 현재 3차 발굴조사까지 진행되었다. 1차 시굴조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전체에 탐색트렌치를 넣어 법천사 寺域範圍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전면적으로 확장하여 유구의 잔존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전체에 유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유구가 층위를 달리하여 여러 번 중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조사는 유구에 대한 정밀 세부조사가 아닌 유구 잔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조사의 성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1차 시굴조사를 제외한 2차, 3차 발굴조사의 내용만을 다루고자 한다.

### 1. 구역 발굴조사 유구(2차 발굴조사)

법천사지 1차 6개년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안에 따라 실시된 2차 발굴조사는 I 구역인 탑비전지를 포함하여 주변일대 약 900평에 대한 정밀 확대조사로 이루어졌다. 이 구역에서 조사의 방향은 첫째, 지광국사현묘탑지의 위치여부 확인과 현묘탑비의 지반 확인, 둘째, 탑비전지 남서편의 환경사 지형 공간내에 탑비전지로 진입하는 관련시설과 부속시설 확인, 셋째, 탑·비 조성 이전의 先代遺構 확인조사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유구는 시기적으로 크게 3시기로 확인되었으며, 적어도 3번 이상의 유구 중복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第Ⅰ期는 시기적으로 塔, 碑 조성 이전인 羅末麗初에 해당되고, 第Ⅱ期는 탑, 비 조성시기와 관련이 있는 11세기 후반~13세기에 해당되며, 第Ⅲ期는 麗末鮮初로 추정되는 시기이다.

#### 1) 第Ⅰ期(羅末麗初)

이 시기는 塔碑가 조성되기 이전인 9~11세기 후반의 遺構를 말한다. 유구로는 건물지 3-2호, 건물지 4호가 해당된다. 건물지 3-2호는 건물지 3호와 3-1호 밑에 중복된 유구로 적심의 지름이 160cm로 대형이고 적심 사이로 고맥이 받침열이 확인되었다. 현재 상층 유구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는 불가하나, 확인된 기단 받침열과 적심의 간격으로 보아 대형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건물지 4호는 건물지 3-2호의 서편에 인접하고 있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지이다. 유구의 방향은 북→동(편동5°)이다.

## 2) 第Ⅱ期(11C後半~13C)

탑·비가 조성된 이후의 시기로 智光國師玄妙塔址를 비롯하여 회랑성격의 진입 建物址와 石築, 階段址, 門址, 排水路 등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유구에서 다시 2번 정도의 增, 改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 1호는 문지를 중앙에 두고 좌, 우 대칭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지가 조성되었고 초석으로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선대의 건물지에 사용된 고맥이 초석을 재 사용하였다. 유구의 방향은 자북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탑·비로 진입하는 경로는 크게 2곳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진입경로는 문지 2호를 지나서 階段進入步度遺構를 통과하고 계단지 5호를 지나 북쪽으로 가다가 계단지 2호를 올라간 다음 건물지 1호의 문지 1호를 통과하면 탑·비에 이른다. 두 번째 진입경로는 건물지 5호, 3호를 지나 계단지 3호로 올라가고 동편으로 꺾어서 건물지 2호를 통해 탑·비에 이른다. 이 시기의 유구 조성은 최대한 造景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설계 하에 실시된 것으로 보여진다.

## 3) 第Ⅲ期(麗末鮮初)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구로는 탑비전지 남편의 치석된 석축과 현재 정비되어 있는 ‘品’ 자형의 건물지 3동을 비롯하여 우물지, 외곽담장지, 건물지 8·9호, 야외화덕 1·2호로 파악된다. 이 유구들은 제 2기의 탑·비로 진입하던 관련시설들이 폐기된 이후 새롭게 들어선 유구로 추정된다.

## 2. Ⅲ구역 발굴조사 유구(3차 발굴조사)

법천사지 3차 발굴조사는 탑비전지로 진입하는 소로를 포함하여 서편 Ⅲ구역 일대 약 930평에 대한 정밀 확대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방향은 2차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I 구역 유구와 Ⅲ구역 유구에서 보여지는 차이점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I 구역 유구와는 달리 제 Ⅱ기에 해당되는 유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 I기와 제 Ⅲ기만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조사된 유구로는 건물지 9동을 비롯하여 석축 2개소, 우물 2개소, 담장유구, 석열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제 I기에 해당되는 유구로는 석축 1호, 건물지 1호, 담장유구, 우물지 1호, 석열유구 등이 있다. 석축 1호는 북→남으로 산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풍화암반층에 형성되었고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화강암질의 자연석으로 巨石이 많이 보인다. 석축 상면에는 건물지 1호가 조성되어 있다. 담장유구는 동편 석축 1호 방향과 북편 우담 정시한 선생의 사당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기초부 일부만 잔존하고 대부분 삭평되어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형의 우물지는 석축 1호가 조성되던 시기와 비슷하거나 약간 앞선 시기로 추정된다. 우물의 상단에는 방형의 목재(밤나무, 소나무)가 2단으로 結構되었고 그 밑으로 강돌을 이용해서 조성했다.

제 III기에 해당되는 유구는 건물지 2호, 3호가 남-북 회랑성격의 건물지로 길게 북편으로 진행되고 건물지 4호 역시 건물지 2호 남편에서 동편으로 꺾여 서편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건물지 5호와 6호는 구들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지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 교란층과 석열 등에 재 사용된 석재들 사이에서 佛像, 蓮花臺石, 塔材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 I기에 해당되는 유구들은 대부분 자북 방향에서 약간 동쪽으로 틀어진 축선방향(편동 5°)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 II기의 I구역 유구들은 거의 자북방향과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III기에 해당되는 유구는 축방향에서 똑같은 정연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III구역 건물지 2호, 4호의 방향을 볼 때 제 I기의 축선방향과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 I기와 제 III기의 축선방향이 일치된다는 점은 사찰이 중창되더라도 법천사의 축선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I구역의 제 II기는 특별구역인 탑·비와 관련된 浮屠殿 성격의 別院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지형에 따라 축선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 3. 출토유물

법천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기와류, 도자기류, 석조물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본 글에서는 I·III구역 출토유물의 전반적인 形態와 特徵을 유구의 先後關係와 層位에 따라서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第 I 期(三國時代~高麗初)

이 시기의 유구로는 I구역의 건물지 3-2호와 건물지 4호가 있으며, III구역에서는 건물지 1호와 석축 1호, 담장열유구, 석열유구가 해당된다.



이들 유구에서 출토된 기와류는 출토양상에 따라 시기차가 폭넓게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와로는 三國時代(新羅)의 양식으로 추정되는 수막새와 선문 평기와가 확인되었고 羅末麗初에 해당되는 시기의 기와는 線紋의 토수기와, 重板線紋 기와, 곱새기와, 線紋 평기와, 4~5분할 蓮花紋 수막새, 單板蓮花紋 수막새, 寶相花紋 수막새, 唐草紋 암막새, 鬼面瓦 등이 출토되었다.

도자기류는 도기와 자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국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일신라에서 고려초에 해당되는 도자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출토된 도자기로는 土器燈臺, 印花紋土器臺, 長鼓形器臺, 扁瓶(一面, 兩面, 四面), 壺, 廣口瓶 해무리굽 靑·白磁가 공반 출토되었고 11세기 후반이후의 도자기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석조물로는 三層石塔의 屋蓋石, 菩薩立像, 菩薩坐像, 蓮花臺石 등이 고려 초의 양식으로 추정된다.

금속류로는 Ⅲ구역 건물지 1호 상면에서 출토된 金銅佛立像이 해당된다.

## 2) 第Ⅱ期(11세기 후반~13세기)

I 구역에서 자북방향의 축선을 갖고 있는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로, 법천사가 大刹로서 가장 큰 사세를 갖추었던 시기로 추정된다. Ⅲ구역에서는 이 시기의 유구가 상층유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상층유구에서도 극히 소량이지만 이 시기의 유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층유구 밑으로 선대의 유구가 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막새기와의 경우, 蓮花紋 수막새 5種과 1種의 암막새가 확인되었으며, 細板의 蓮板을 가진 수막새에서는 朱漆한 흔적도 보인다.

도자기는 퇴화기의 해무리굽청자를 비롯하여 양질청자(음각, 양각, 상감), 조질청자(음각, 양각, 무문)가 확인되고, 기형에 따라서는 완, 접시, 대접, 잔, 풍주, 반, 뚜껑 등 다양하고 음각 및 壓出陽刻의 문양에서는 牡丹紋, 菊花紋, 蓮瓣紋, 鸚鵡紋, 龍紋, 草花紋, 雲紋 등 다양하게 보인다. 일부 소량이지만 수입자기인 중국 宋代의 청백자도 출토되었다.

석조물로는 智光國師玄妙塔址에서 현묘탑의 상층기단모서편과 石燈의 火舍石片 그리고 석등의 간주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獅子의 臀部片이 출토되었다. 또한 점판암질의 버루편도 소수 출토되었다.

금속유물로는 鐵斧와 철보습 그리고 소량의 鐵釘이 출토되었다.

### 3) 第Ⅲ期(麗末鮮初)

이 시기는 I 구역에서 塔碑殿 즉 浮屠殿과 관련된 시설들이 폐기된 이후 새롭게 조성된 유구로 석축 1호, 우물지, 건물지 8·9호, 야외화덕 1·2호, 외곽담장유구가 해당되며, Ⅲ구역에서는 상면에 노출된 건물지 2~9호가 모두 이 시기로 추정된다.

기와에서는 고려말~조선초의 양식으로 보이는 鬼目紋 수·암막새, 蓮花紋 수막새, 牡丹紋 암막새, ‘梵’자를 장식한 막새와 異形紋樣의 막새 등이 확인되고 集線紋과 複合紋을 모티브로 하는 평기와가 해당된다.

도자기는 고려말의 청백자를 비롯하여 조선전기의 粉靑沙器와 白磁가 다량 출토되었다.

## V 맺는말 - 조사성과와 의의

법천사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발굴조사는 전체 사역범위를 고려할 때, 극히 일부분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법천사의 전반적인 伽藍과 유적의 性格을 검토하는데는 아직 이르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3차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된 成果와 意義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유적과 관련된 文化觀光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I, Ⅲ구역에 대한 2차, 3차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 구역 탐비전지의 탐비 서편에 대한 탐색 pit조사를 통해서 國寶 제101호인 智光國師玄妙塔의 확실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탑의 上層基壇 모서리편과 방형의 積石施設이 확인되었고, 아울러 石燈의 火舍石片과 獅子像 臀部가 공반 출토되어 법천사에 쌍사자상 석등의 조성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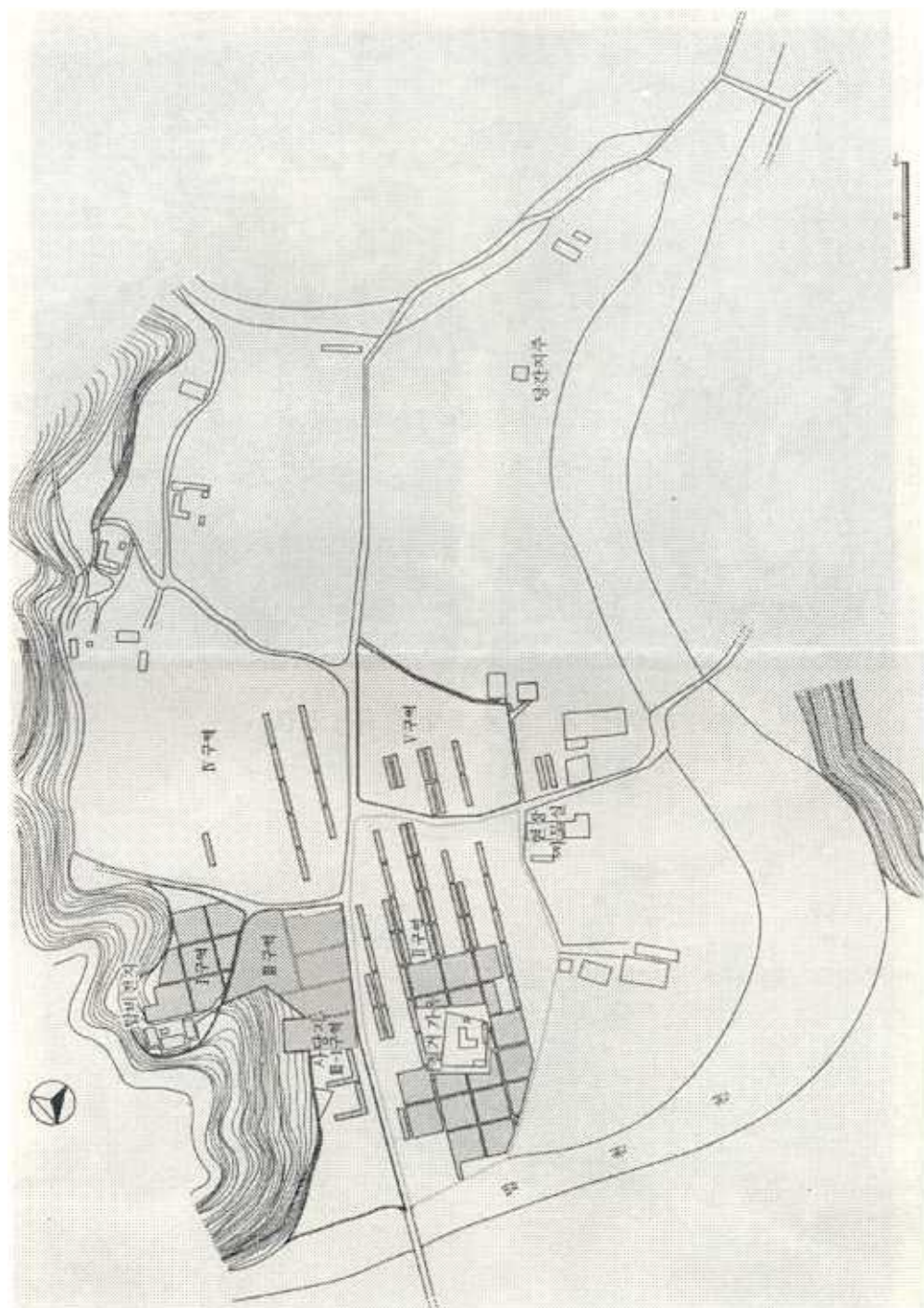
둘째, I 구역 조사에서 건물지 3호의 하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지가 3번에 걸쳐 중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탐비전지 남편석축이 가장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지역은 적어도 3~4번에 걸쳐 중,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구역의 층위별 출토유물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羅末麗初부터 朝鮮前期까지 폭 넓은 기간동안에 해당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셋째, Ⅲ구역 조사에서는 나말려초에 해당되는 유구와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고, 특히 소량이지만 기와에서 三國時代(新羅)까지 연대가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蓮花紋 수막새와 線紋 평기와가 출토되어 統一新羅 이전 법천사 創建期の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째, III구역 출토유물 중에는 佛教美術史的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자료가 확인되었다. 통일 신라말의 양식으로 추정되는 金銅佛立像을 비롯하여 2점의 石造菩薩立像, 月精寺와 神福寺址 石塔 앞에 있는 石佛坐像과 비슷한 양식의 菩薩像, 石造佛像 및 佛臺座, 평면 ‘亞’ 자형의 물당이 보이는 蓮花臺石, 異形의 석탑 屋蓋石 등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유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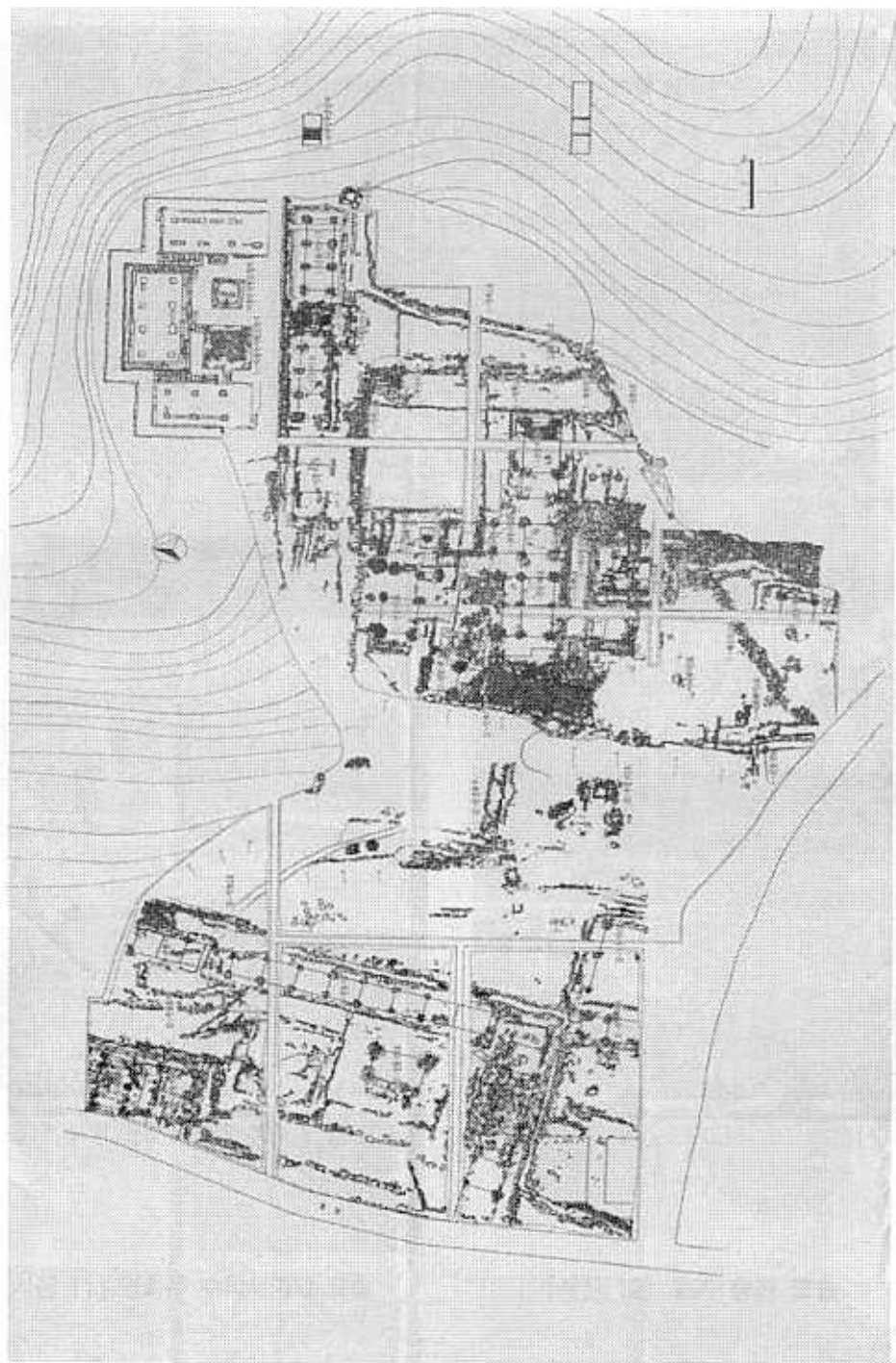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천사지 발굴조사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추후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본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천사지 유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계획과 정비, 복원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원주시의 대표적인 3대 사찰유적인 법천사지, 흥법사지, 거둔사지를 비롯하여 다른 주요유적들도 함께 문화관광지로 벨트화하여 관광객들의 관광시간과 일정을 고려한 코스별 관광노선도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홍보하여 원주의 미래지향적인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1] 구역별 조사 계획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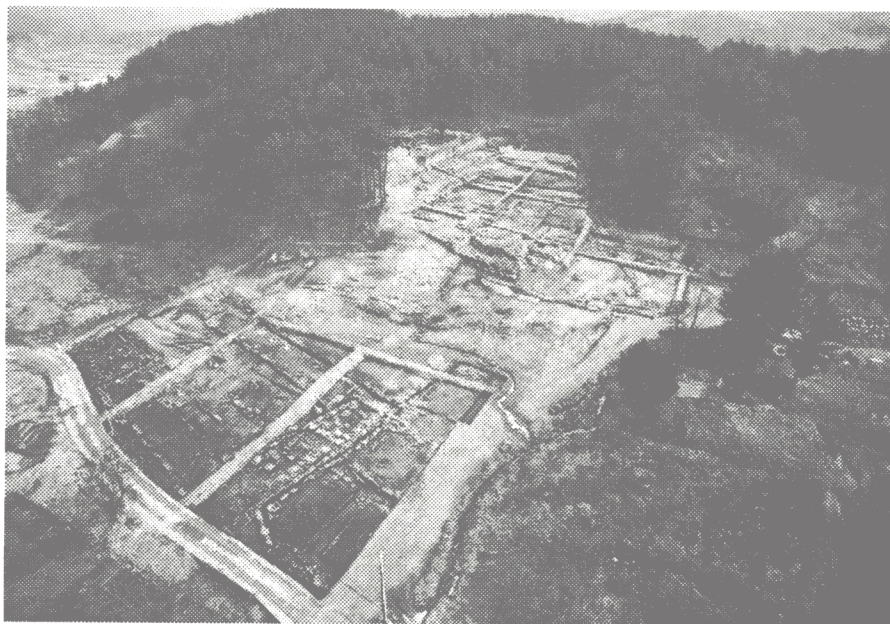


[사진 2] 발굴 조사 전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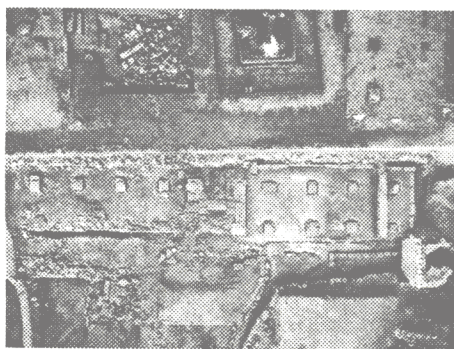


[사진 3] ,III구역 전체 유구 평면도 모습





[사진 4] I, III구역 전체 유구 항공촬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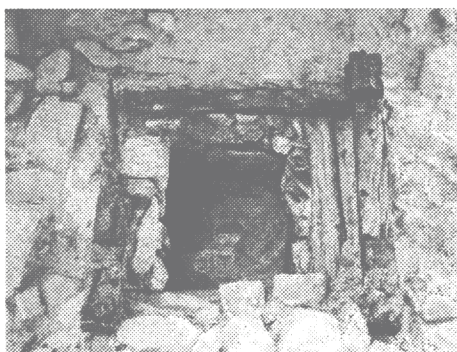
[사진 5] 현묘탑지·건물지 1호 모습



[사진 6] I구역 건물지 3호 중북 모습



[사진 7] III구역 석축 1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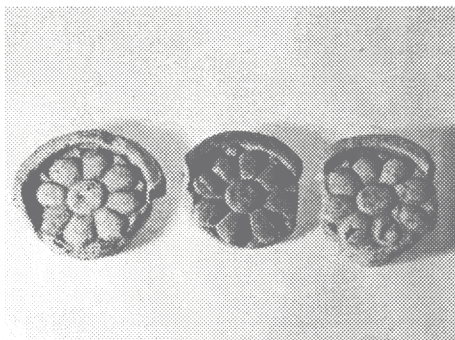
[사진 8] III구역 방형 우물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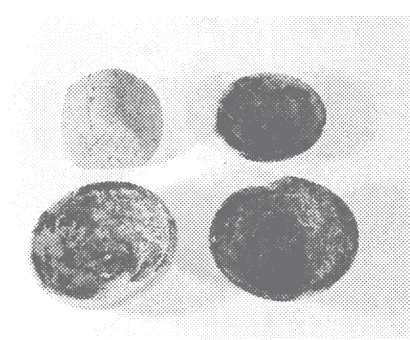
[사진 9] III구역 건물지 2호 모습



[사진 10] III구역 건물지 5호 모습



[사진 11] 연화문 수막새기와 모습



[사진 12] 토기 등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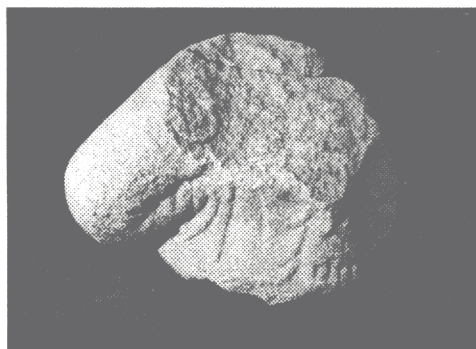




[사진 13] 귀면와 모습



[사진 14] 금동불입상 모습



[사진 15] 보살좌상 모습



[사진 16] 연화대석 모습

제4주제

# 북원문화권의 정체성과 기본구상

김 주 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II. 북원문화권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III. 북원문화권의 역사정체성과 특징

IV. 북원문화권조성계획의 기본 구상

참고문헌

# 북원문화권의 정체성과 기본구상

김 주 원 \*

## 서론

세계화·개방화과정에서 지방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부분과 부분의 집합이 전체”라는 등식에서 “부분이 곧 전체”라는 등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논리는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국회통과로 더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지방문화를 재발견 혹은 재창조하는 작업은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

영서남부지역의 북원문화권은 치악산과 섬강, 남한강에 위치한 중부내륙거점인 원주를 중심으로 지방문화권을 의미한다. 고려 왕건이 처음 사용했던 원주는 역사의 격변기마다 새로운 사회, 군사, 문화적 조류를 태동시키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7대문화권(백제, 신라, 가야, 중원, 고구려·고려, 영산강·다도해, 강화문화권) 유적정비 계획에서 중원문화권의 일부로 치부되고 있어 역사문화인식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도와 원주시는 춘천의 “충효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강릉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원주의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는 문화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우선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중심으로 북원문화권 역사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북원문화권의 역사정체성과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북원문화권조성계획의 기본구상을 논의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 II. 북원문화권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 북원문화권의 정체성

#### 1) 정체성 개념규정 문제

지역정체성이란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 나 자신의 해답으로서 자아의식과 같은 뜻을 지닌다.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 자신의 해답, 규정, 혹은 인식으로 ‘집합적 자아’의 경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의식을 의미한다. Goffman, Habermas 등의 사회학자들은 이 같은 자아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며 정체성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때문에 정체성은 주관적인 성질이 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정체성에 대한 판단과 인식은 일정하게 객관적인 사실, 경험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사회적·인위적 노력을 통해 교육, 각인되는 측면이 있다. 또 정체성은 일단 한번 형성되면 시각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유팔무, 2000 : 35~36 ; 홍승직, 1994 : 82).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Ericson으로 ‘정체성이라는 말은 …… 자아 내부에 있는 지속적 동일성과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몇 가지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자아형성을 문화사회와 관련지어 연구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E.H.Ericson, 1968).

정체성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 또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거듭하게 됨으로 생각이나 행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기는 언제나 과거의 자기와 같고 내일이나 미래의 자기와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점차 그 통합성을 굳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외 정체성 개념<sup>1)</sup>에 의해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인문·사회 등 여러 과학과 사회사상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인간의 정체성에 한정되었고 도시나 장소의 정체성까지 확대되지 않았었다(계기석외, 2001 :

1)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事典的) 개념은 ‘본래의 성질’ 혹은 ‘본래의 가치’를 말하며, 학문적 용어로는 ‘세계관 가치관이 정립된 주체의식’을 말한다. 정체성이란 영어로는 ‘identity’이며 그 어원은 라틴어인 identitas, identicus 이며 idem, 즉 ‘동일하다’는 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

12-13).

그 이후, 캐나다의 지리학자 Relph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장소가 갖는 정체성(identity of places)에 대해 개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소와 장소정체성을 정의하고 장소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정적인 물리적 장치, 관찰되는 활동이나 기능 그리고 의미성과 상징 등을 선정하는 한편 장소정체성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근대도시의 경관형성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경관측면에서의 장소정체성 확립을 논의하였다(E. Relph, 1976 : 44-61 ; E. Relph, 1987).

더 나아가 Lynch는 환경적 이미지는 정체성, 구조물, 의미성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Kevin Lynch, 1960 : 8). Lim은 환경정체성(environmental identity)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지역성, 상황성, 역사성, 도시적 공간, 환경적 스케일, 도시 경관, 도로의 선택성, 상징성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W. Lim, 1984 : 183-188). Belay는 문화정체성 측면에서 시간성, 지역성, 대비성, 상호성, 복수성이라는 다섯 가지 개념요소 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간성과 지역성인데, 문화정체성의 개념에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간의 축과, 지역문화의 보편문화를 잇는 공간의 축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양건열, 2002 : 237).

지역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지방자치적 차원에서 논의된 사례는 1990년 초반 영국의 지방자치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가 지방의 정체성과 관심에 대한 정책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영국내에서도 이슈로 대두되었다.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의 역사, 지형·지세, 스포츠, 레저 등을 포괄하는 문화, 산업, 교통, 인구이동성 등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이 이 위원회에서 강조되었다(Rick Ball & Jon Stobart, 1996 : 113-115). Giddens은 그의 저서(권기돈 역, 2001)를 통해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변증법적인 논의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 지역정체성과 관련한 논의는 탁석산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유성과 창조성을 겸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제시하였다(탁석산, 2001 : 84-114). 유병림·황기원 등은 도시환경의 문화적 정체성 연구에서 도시문화환경과 정체성과의 관계, 정체성의 개념구조 및 구현 방법론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사례연구를 함으로써 패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환경의 질을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 김한배는 한국 도시의 원형과 고유의 구조를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매력없고 비인간적인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한배, 1997 : 19-29).

한편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전략을 축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김준, 2002 ; 정근식, 1998 ; 정호기, 1998 ; 이정덕, 1998 ; 송갑태, 2001 ; 김병철, 2002)가 있다. 이외에도 일정지역의 지역주민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논한 연구(최병목, 1999 ; 유팔무, 2000 ; 이선아·김병관, 1996 ; 전상인, 1998)가 있다.

## 2. 지역문화정체성 구성요소와 계획방향

### 1) 지역정체성 개념과 구성요소

정체성은 다른 것과 통합되는 상관적 공유성과 다른 것과 구별되는 배제적 고유성 둘 다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개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즉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경우는 그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특징인 동일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의 개체로서 보았을 때는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특징인 개별성의 측면이 있다. 전자는 “.....와 같은(identity with)”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의(identity of)”라는 뜻을 가진 정체성이다(E.Relph, 1976 : 45). 동일성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은 바로 그 지역답다”라는 개념이다.

동일성은 변화에 대한 연속성과 어떤 대상에 대한 동일화라는 개념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연속성이다. “○○지역과 관련되는 나는 그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지거나,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지는 것은 동일화라고 할 수 있다.

개별성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고 더 낫다”라는 개념으로서 특이성과 우월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특이성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월성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무언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유병린·황기원, 1992 : 23-26). 우월성도 여러 지역들 간에 공통적인 요소를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경우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요컨대 지역 정체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자연(사람 포함)자원, 경관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표-1> 지역정체성의 개념적 구분과 의미

구 분			의 미
동일성(그 지역 은 그 지역답다)	연속성		그 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
	동 일 화	투입에 의한 동일화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정합에 의한 동일화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개별성(그 지역 은 다른 지역과 는 다르다)	특이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우 월 성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도 있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
		고유요소 존재에 의한 우월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요소가 있어 더 뛰어나다.

출처: 황기원, 1995 5.

정체성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역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사항이나 지리적·환경적 고유요소로부터 도출되는 사항 중에서 지역주민의 수요와 부합되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대체로 역사, 문화, 경관, 산업 등과 같이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고 지역적인 수준에만 영향이 과급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계기석 외, 2001 : 10-11).

역사분야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이 대동되었거나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래자원이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나 인물들의 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홍보한다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문화 분야에는 음악, 미술, 문학, 영화, 민속 등 다양한 세부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만 전래하는 문화활동이 존재한다면 이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전래하는 문화적 요소가 없는 지역이라면 새로이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경관분야의 정체성 확립은 주로 산림, 하천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지역 내 건축물, 구조물, 지역공원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미적이고 쾌적한 경관이 주요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적인 시각경관 외에 미적이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인지되었거나 특별한

의미나 인연을 갖는 경관도 중요한 경관정체성 확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되는 산업이 존재할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산물이나 수공업은 그 지역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지역정체성 확립 분야의 내용

분 야	내 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민주화운동
문화정체성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출처: 계기석 외, 2001 24.

## 2) 지역정체성 조성을 위한 방향

다음에서는 앞서 논의된 지역정체성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확립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즉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낙후성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지역균형발전문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 등 전통을 말살하고 지역색을 없애려는 정부의 농촌혁신정책이 그 시발점이 되었고 '80년대 '90년대 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은 지방의 획일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지역개발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대단위 택지와 단지개발이 촉진되었다. 그 결과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전통보다는 현대적인 것을 더 선호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개발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단지개발, 상징물, 경관 등도 지역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획일성을 강조하는 개발이었다. 지역의 공간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들도 허용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축되어 지역공간의 고밀화, 고층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쁘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여건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채 확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고층아파트가 일반적으로 건축되고 있고, 도심뿐만 아니라 교외지역에서도 고층화, 고밀화의 확일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지역을 조화롭고 개성적인 모습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단위면적당 사업이익을 높여야 한다는 수익중대적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계기석외, 2001 : 33-34).

실제로 지역정체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의 이미지가 중요한 변수이다. 주택(단지)구조, 도로, 랜드마크, 경관 등이 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인공적인 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환경은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정체성요인의 내재적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지역의 지역정체성은 전통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어느 일정지역의 관습, 습관의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관습, 전통적인 문화행사 등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확일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커뮤니티 사회가 현대화 과정에서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해체되고 주민들은 익명성 속에 자기 생활에만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동네에 대한 귀속감이 희박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주거이동현상도 동네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도 주거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급격한 주거이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도시민이 몇 년에 한번씩 주거를 옮기는 상황에서 우리 동네라는 의식은 형성되기가 힘들다. 우리 동네의식이 형성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도시라는 의식이 생기는는 더욱더 힘들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유사성도 앞서 논의된 동질성의 개념으로 하나의 변수로서 고려될 수 있다. Wittgenstein의 가족적 유사성과 같은 개념으로 한 가족의 성원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 모두 서로 다르지만, 한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가족원들과는 구분되는 어떤 동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41).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중소도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공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역정체성은 구성요인이 도시이미지와 같은 인위적인 부분과 자연환경

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는 경관요인과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전통 등을 주요소로 하는 역사적인 요인 등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고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등을 통한 지역의 산업적 측면과 축제, 연극, 문학 등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지역의 공간적 창출이나 지속적인 측면이 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된 정체성 구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에 대한 방향은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Ⅲ. 북원문화권의 역사정체성과 특징

#### 1 북원문화권의 개념규정

한반도에서 북원문화는 한강과 섬강 유역과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고구려·백제·신라의 접경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북원문화의 개념과 그 문화권 범위 설정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략 원주를 핵으로 하여 강원영서남부 일원을 포괄하는 지역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치악산과 남한강, 섬강을 중심으로 산재한 많은 문화 유산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현상을 북원문화로 규정하여 이러한 북원문화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형성된 문화권역을 북원문화권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북원문화권은 다른 문화권과는 달리 시대와 시간의 개념이 아닌 지역의 개념으로 설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화권은 경주의 신라나 부여의 백제, 가야문화권과 같이 한 왕조 중심의 문화나, 또한 강화도와 같은 도서지역이나 특정 종교와 관련된 문화가 아니라 중부 내륙지역에 있어서 복합적인 성격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권으로 설정된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신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치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나말여초 양길→궁예→왕건으로 이어지는 고려(Korea) 창건의 중심활동무대가 북원문화권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화권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 2. 북원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원문화의 시원은 선사시대에서부터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부내륙의 거점으로서 이 지역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발굴된 문화유적들에서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법천리 고분에서는 백제왕조문화와의 교류를 상징하는 금제스파이크가 발굴되기도 하였다(윤형원, 1999). 이지역은 오대산 우통수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태기산에서 발원한 섬강은 그 상류로부터 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강굽이가 발달해서 많은 선사시대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고, 또 이 지역에서는 석기 제작에 필요한 양질의 재료들이 풍부하여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선사시대는 물론 이후 역사시대의 다양한 성격의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특히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부론지역은 선사시대 유물 유적이 시대별로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북원지역의 원삼국시대문화는 한강을 중심으로 백제와의 물적교류가 활발했다. 서해안에서 생산된 소금을 배로 가지고 와 내륙지역의 특산물과 교환하는 형태의 경제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백제는 국가발전에 중요한 철과 노동력 자원의 확보를 위해 한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원주를 포함한 남한강 일대에 세력진출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천리 고분에서 최근(1999년 국립중앙박물관 팀) 출토된 금동식리편 금제세황이식은 백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파이크가 장식되어 있어 5세기경 백제문화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북원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부터다. 삼국은 안으로 왕권강화와 밖으로 정복사업을 벌여 중앙 집권적 귀족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4세기 이후 북원지역은 삼국간 항쟁의 중요한 쟁패지역이었다. 삼국시대의 북원지역은 삼국이 각각 분립하는 가운데 삼국의 주요 쟁패지역이면서도 백제·고구려·신라 순으로 주인이 바뀐 점, 특히 신라가 고구려에서 국원성을 확보한 후 이곳에 국원소경(577)을 설치하여 중앙 정치를 보완하는 제2의 왕도라는 성격을 가진 부도(副都)를 경영한 점,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 신라가 5소경 중 중심적 위치에 있는 원주에 북원소경(문무왕 18년, 678년)을, 그리고 원주에 북원소경(678), 청주에 서원소경(658)을 각각 설치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 북원문화는 혼합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왜의 문화요소도 수요할 정도로 여러 이질 문화를 포용·유합함으로써 일종의 용광로(Melting Pot) 역할을 한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통일신라에 와서 원주에 설치된 북원소경을 보위해주는 성으로 치악산을 중심으로 영원산성, 해미산성, 금대산성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북원지역이 지리적으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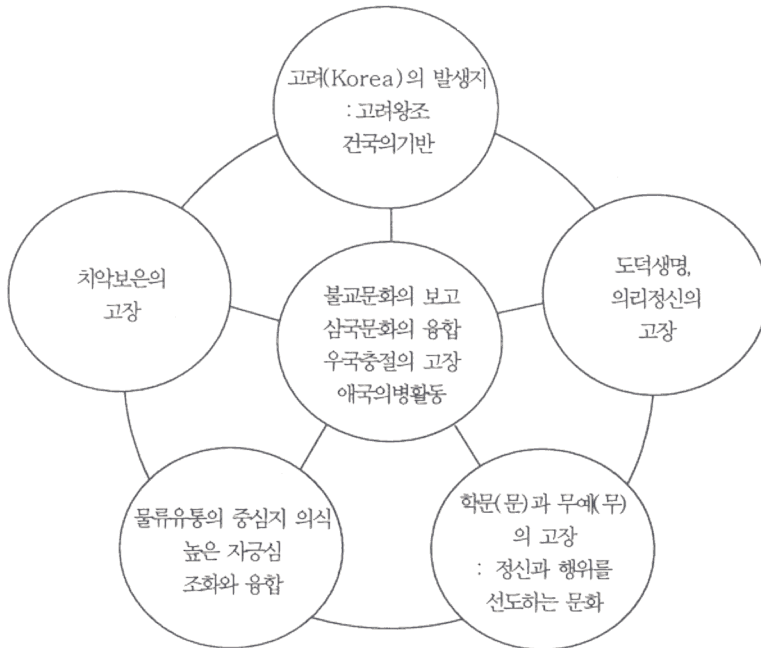
특히 북원지역은 나말여초에 정치세력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9세기말 신라가 쇠퇴로 각

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반란세력이었던 양길은 원주지역을 근거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양길은 접경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였고 궁예가 양길을 배반하고 송악을 근거로 후고구려를 건설하였다. 후고구려(태봉)도 불과 18년만에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에 의하여 멸망하고 고려(Korea) 건국하였다. 고려태조 왕건은 이지역의 호족세력을 기반으로 고려왕조를 건국했기 때문에 남한강을 주요 통로로 고려왕조(개경)와 교류관계가 깊었다. 흥법사에 왕건의 스승인 왕사가 있었고 원주원씨와 교류관계가 깊었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고려건국기 원주불교세력의 역할이 증대했다. 왕건이 직접 비문을 쓴 원주 흥법사에 입정한 충담의 비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충담은 고려건국기 왕건의 왕사였으며, 흥법사지 인근지역에 왕건이 올랐다는 건등산이 있다. 법천사, 흥법사, 거둔사 등 신라 왕건전 대사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 세력이 고려왕조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행정구역으로 원주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도 고려 태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지역은 고려시대에서도 거란과 몽고 2번의 침입시 원충감장군 등과 지역주민들이 치악산 영원산성을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지역은 물류 교통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고려 공민왕 2년(1353)에 종래 원주목에서 조선 태조가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면 강원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릉의 강자와 원주의 원자를 합하여 강원도로 개칭하였다. 원주는 조선 팔도시대 강원도의 수부로서 500여년간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지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임진왜란 때 김제갑 장군이 영원산성을 중심으로 항쟁활동을 했으며, 의병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최시형·손병희의 동학농민운동, 구한말 의병활동, 일제강점기의 3·1운동 등으로 국가보위를 위한 구국운동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전개한 의열의 고장이기도 하다. 한편 칠봉서원과 향교 등을 중심으로 학문도 발달하였다. 원주의 서원과 향교에 배향된 원천석, 원호, 정중영 등에 의한 학문적 발달을 토대로 조선 중후기에는 다양한 사조와 철학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을 배출하고도 했다.

### 3. 북원문화의 역사적 정체성

북원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토대로 역사정체성을 구성해 본다면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 되지 않았던 고려왕조의 발생지라는 의미를 부여해 볼 필요가 있다. 양길 궁예 왕건으로 이어지는 고려왕조 쟁패지역이 이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고려 건국 이후에도 왕건의 왕사가 흥법사에 계셨고, 원주원씨 세력과 흥법사, 법천사, 거둔사 등 대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세력이 많은 후원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 북원문화의 역사적 정체성



고려대 김충렬 명예교수는 원주 치악의 정신을 치악보은(治惡報恩)에 뿌리를 둔 도덕생명(道德生命)의 의리정신(義理精神)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치악산 뽕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치악산 뽕 전설을 요약하면 “과거를 보러가던 선비가 있었다. 선비는 무시무시한 비단구렁이의 공격을 받아 제 새끼들의 생명을 구하려 사력을 다해 대항하고 있는 어미 뽕에 감복되어 활을 당겨 어린 생명을 구했다. 생명의 존귀성과 힘없는 생명을 먹이로 하려는 구렁이의 사악함에 대한 선비의 응징은 바로 선비정신 도덕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미물인 뽕이 죽어가면서 상원사 종을 울려 다시 선비를 구해주는 대목은 우리 인간사의 근본인 의리정신과 보은사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일이 많은 요즘 세대에 이 전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악산 상원사에 전해지는 이 전설에서 김명예교수는 악(惡)을 다스리는 치(治), 치악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으며 원주는 생명을 중시하는 전설과 문화가 역사 속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원문화권 정체성 정립에 있어 불교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원주 일원의 석탑과 불상을 포함한 불교문화는 혼합문화적 성격을 가지는데 신라에 의해 성립되고 고려에 의해 더욱

뚜렷하게 빛을 발하였을 정도로 북원문화의 한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사찰분포는 시대별로 국가적 차원에서 북원문화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려시대에는 대사찰, 흥법사, 거둔사, 법천사를 중심으로 중부권의 핵심지대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었다. 나말여초 원주 불교계는 국가의 불교 정책과 중앙 불교계의 변화에 동반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대별로 원주 불교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라 통일기 의상계 화엄종이 세력을 펼쳐나갈 시점에는 의상이 창건한 비마라사를 중심으로 영월 세달사 출신 신림과 질웅 스님이 활동하였다. 나말여초 사회적 격변기에 견훤과 궁예·왕건을 중심으로 남악계의 관례와 북악계의 희랑이 대립할 무렵 북악계의 중심 승려인 희랑이 영월 흥녕선원의 원주(院主)로 활약하였다. 나말여초 선종이 한국 중세 불교계의 중심에 섰을 때에는 원주 서부 지역에 9산 선문 가운데 가자산문과 희양산문의 승려가 거둔사와 흥법사에서 활동하였으며, 원주 동부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영월 수주면 흥녕서원에서는 사자산문 승려가 활동하였다. 불교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원주 사회 내부에서의 여러 사찰의 공존하고 있다. 현재 원주지역의 불교 문화유적은 사찰 12개소, 사지 15개소가 있다. 또한 원주지역의 불교 문화유산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 3개소, 보물 7개소, 사적 1개소와 도지정 문화재인 유형문화재 16개소, 기념물 1개소, 7개소가 있으며 원주지역 주요 사찰과 원주지역 주요 사지(寺址)(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둔사지)가 있다.

북원문화는 자연 지리적 특징에 따라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조화·융합의 정신이 강하다. 북원문화는 역사적으로 삼국의 항쟁과정 속에서 여러 백제·고구려·가야·신라 등 여러 이질 문화를 받아들여 조화와 포용의 문화를 형성시킨 점이 특색이고, 그 특질을 시대적 감각에 따라 당시에 맞게 변형시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쳐 보편화되었다.

또 북원지역은 왕도인 중앙의 정치적 특징과는 달리 지방의 별도인 소경으로서 학문·종교·예술 등 문화적 전통이 강했던 점이 특색이다. 이 지역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지방문화의 중심지인 중원소경(충주)·북원소경(원주)의 2소경이 배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불교·유교·예술의 중심지였다는 문화적 긍지를 갖고 있었다.

이지역은 불교뿐만 아니라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전통도 강한 지역이었다. 칠봉서원과 향교 등을 중심으로 학문발달 중부내륙의 학문이 발달하기도 했다. 원주의 서원과 향교에 배향된 원천석, 원호, 정중영 등에 의한 학문적 발달을 토대로 조선 중 후기에는 다양한 사조와 철학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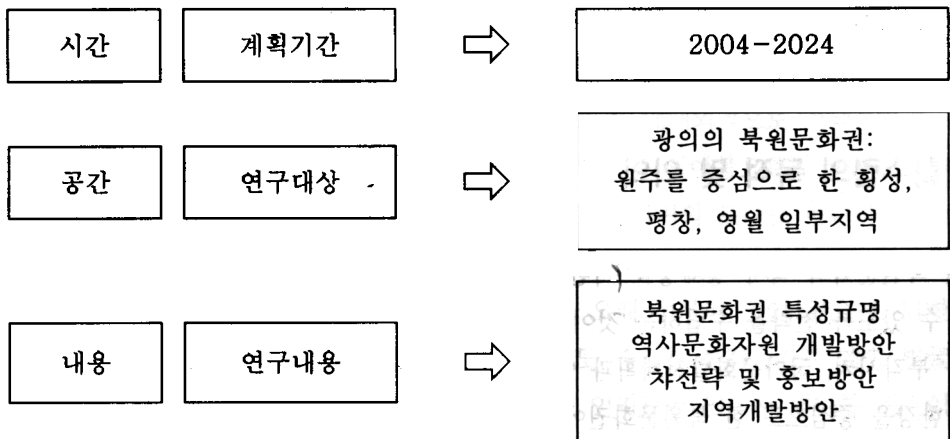
또한 북원지역은 우국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북원지역은 국란시 충렬과 호국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군사적·교통로상 요충지로 북원은 여러 차례 빈번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삼국 항쟁기 이래 형성된 북원의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정서는 강한 자립의 생명력과 인내심을 터득하였다. 민족의 시련과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으로 뚫고 나가는 저항과 극복의 정신을 견지하였다. 치악산 영원산성은 고려 외적 침입 격퇴지일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원주가 외적 침입 때 주 공략 대상이 되었던 것은 흥원창의 곡식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이 분지이기 때문에 대군사를 동원하더라도 은폐될 수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북원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정치적 안정과 국력시장과 국난 극복을 위해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이 배출한 점은 바로 북원의식이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중심지 의식에서 생성된 자긍심과 조화 융합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Ⅳ. 북원문화권조성계획의 기본 구상

### 1. 계획수립의 범위

<그림 2> 계획수립의 범위



1) 계획기간 : 2004-2024년(20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

## 2) 계획의 공간적 대상

북원문화권의 범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남한강 중류와 섬강, 치악산으로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원문화권을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고려할 경우 500년 강원감영이 있었던 원주를 중심으로 남한강 중류와 섬강지역이 핵심지역이 되며 그 영향력은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 일부지역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은 역사적 경험과 그에 바탕을 둔 생활문화 공유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소위 북원문화권의 핵심지역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오늘날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원주시라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개발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행정당국이라는 의미에서 도농복합시인 원주시를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원주시 지역은 그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원문화권계획은 주된 대상지역적 범위는 도농복합시 원주시 전 지역을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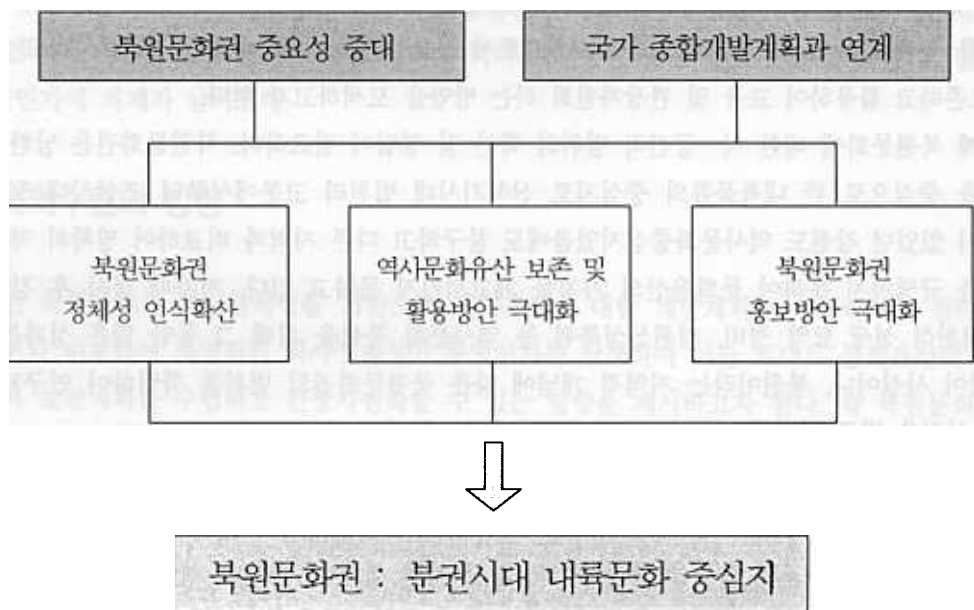
다만 부차적인 지역으로는 문화권역의 성격상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던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남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적 교류는 필연적으로 여주, 이천 등 경기도 지역, 충주, 단양을 포함하는 충북지역 등 남한강 유역과 횡성, 영월, 평창 등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게까지 이르며 이러한 교류의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부차적인 지역으로 하여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일부지역(여주, 이천 등), 강원도 서남부지역(횡성, 영월 등), 충청북도 북서부지역(충주, 단양, 제천 등) 등이다.

## 2. 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첫째 북원문화의 역사 정체성을 기반으로 영서남부지역이 신지방시대 문화창조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논의가 부족했던 북원문화권의 정체성을 부각시켜, 국가문화발전계획과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분권시대 치악산과 섬강·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북원문화권에 대한 재조명과 문화창조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 이전부터 강원영서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북원문화의 역사적·문화적·지리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자치·분권시대 중추적인 문화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림 3〉 북원문화권 발전계획의 목적과 의의



둘째,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 북원문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북원문화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일천하지만, 많은 원주 남한강지역과 섬강을 중심으로 학술적 연구성과와 불교, 유교와 관련한 문화유산이 발굴되었으나,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북원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은 물론 합당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내부적으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대외 홍보방안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북원문화라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강원영서남부지역의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북원문화권에 대한 언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남한강 유역의 불교문화자원, 법천리 고분 발견 등의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이 계속 발굴 제시되고 있으며 또 무수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북원문화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이나 보존을 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다. 그러나 북원문화권을 접하고 있는 중원문화권은 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7대 문화관광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4차국토개발계획 등 여러 개발계획에서 하나의 권역으로 다루고 있다. 강원영

서남부지역은 중요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분류 및 보존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강원영서남부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주요 내용을 정리분석하고 이것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북원문화에 대한 시·공간적 범위의 확산 및 정립이 필요하다. 북원문화권은 남한강·섬강을 중심으로 한 내륙물류의 중심지로 신석기시대 법천리 고분에서부터 조선시대 500년 감영이 있었던 강원도 역사문화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명확히 역사정체성을 규명하지 못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실시 후 감영복원, 원천석 선생 묘역 정비, 영원산성복원 등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나, 북원이라는 지역적 개념에 따른 북원문화권의 범위를 확립하여 연구된 계획과 사업은 별로 없었다.

다섯째, 신지방화시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문화자원의 보존과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문화관광권 중 하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북원문화권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국책사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북원문화권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통일시대와 21세기 북원문화권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북원문화권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전 국민의 접근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게 되면 북원문화권 지역은 역사적 체험 및 학습 그리고 자연관광이 어우러진 역사문화 학습체험의 최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이러한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앙복선철, 강릉철도가 계획되고 있어 엄청난 유동인구를 유발하게 될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의 사회를 대비하여 북원문화권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또 그에 바탕을 둔 개발을 이루는 것은 문화자원활용이라는 의미에서도 그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개발은 향후 북원문화권을 우리 나라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부상시키기에 충분하며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북원문화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분권시대의 중부내륙 문화의 거점으로 중심역할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북원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개발과 보존을 계획하는 것은 신지방시대 신문화창당을 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문화정신적 제도적 모형은 아직 없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아 과거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영서남부 지역, 즉 북원문화권의 역사정체성 확립은 신지방시대 새로운 역사적 중심

으로서의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남한강과 섬강을 중심으로 내륙물류와 경제의 중심지로 불교문화의 보고이며 500년 강원감영이 있었던 강원문화의 중심지였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현재에 접목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과제가 남아있다.

### 3. 계획수립의 방향

우선 북원문화의 역사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타 문화권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역사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과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북원문화권의 특성 및 비교우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향후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맞는 발전지향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향후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환경이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와 개방화시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고 그 바탕위에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정책의 방향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북원문화의 특성을 개발·보존하고 홍보하여 지역의 고유한 역사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한다.

그리고 북원문화가 우리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사문화는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서로 섞여 그 성격이 불명확하게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고유한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추구하던 문화권 개념을 벗어나 국토의 지리적·물류적 중심 및 나아가 문화사적 중심으로 확대하여 북원문화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물중심에서 벗어나 역사, 지리, 민속, 교류 등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북원문화권의 특성을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개발에 따라 중부내륙의 역사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북원문화권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북원문화권이 단순히 중부내륙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가 아닌 역사와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북원문화권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유산을 북원문화권이 가지는 특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규명해야 한다. 삼국의 문화유산은 물론 고려와 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단지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관점을 넘어 북원문화라는 틀에서 재분류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그 정체성과 현대적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

이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체 계획이 차별적이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설정 및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도록 하고,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취를 위한 민간,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역할이 균형있게 배분되어 높은 실현가능성을 갖는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문화친화적 개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원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문화관광산업발전 인프라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문화친화적인 개발전략이 되도록 고려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북원문화권은 치악산과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형성되고 관광벨트와 연계성을 갖추어 원주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로 통해 원주의 역사이미지를 높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의미를 찾도록 함으로써 치악산·남한강 등 자연관광을 보완하여 명실 공히 우리나라 역사문화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주요 북원문화권 역사복원사업은 대단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실천적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원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경쟁력있는 문화산업으로 개발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 홍보전략 및 실행계획이 함께 이루어져 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원문화권 지역의 문화자원은 현재까지는 북원문화의 성격규명 작업에조차 불명확한 가운데 체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개발 계획이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규모 역사유적지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복원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원주시립박물관이 개관되어 있으나 중요 문화재가 서울, 춘천 등에 분산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 계획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핵심분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북원문화권의 비교우위 또는 이미지를 특화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하위 분야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성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사업, 그리고 그 이후의 중요성과 시간적 시급성을 갖는 중점사업, 그리고 각 기억에서 독자적으로 추구하되 전체적으로 의의를 갖는 그러나 중요성과 시급성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 소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부문별 개발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북원문화권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원주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원도 전지역 개발전략과 연계성을 갖

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 수요자의 요구 파악을 통해 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조화 및 연계를 통한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문화재보존관리 중장기 계획, 참여 정부 새문화정책, 문화산업발전 기본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종합발전계획 및 강원도의 문화발전계획 등 지역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 4.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의 주요사업내용

##### 1) 자연·인문지리적 범위

북원문화권지역은 태백산맥에서 갈린 차령산맥의 능선을 타고 북쪽에서부터 매화산(1,084.1m)·치악산 비로봉(1,288m)·향로봉(1,042.9m)·남대봉(1,181.5m) 등이 남쪽으로 늘어지면서 북서쪽을 향해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치악산을 중심으로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남쪽의 산지가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경사도는 원주시내와 문막읍을 중심으로 경사 10° 이하인 아주 완만한 경사지대로서 47.37%를 차지하며 산악지방은 대부분 30° 이상이다. 치악산을 중심으로 영원산성 등이 있다.

또 이들 지역은 독특한 원주언어권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으로 영서북부 언어권, 서쪽으로 경기도 언어권, 동쪽으로는 영동남부 언어권,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언어권과 접촉하는 접촉언어권이다. 원주권의 방언에 대한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강원 남부권의 경우 강릉, 삼척, 정선 지역과 원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원주가 독특한 문화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 2) 북원문화권조성계획의 주요사업

북원문화권 정립을 위한 핵심개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내용은 추후 여론 수렴,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① 북원역사문화박물관 건립
- ② 북원역사문화단지 조성
- ③ ‘보은의 광장’ 단지 조성
- ④ 불교문화유적지 정비 및 불교체험관 건립

⑤ 충렬사 복원

⑥ 칠봉서원복원

⑦ 고려(Korea) 발상지관련 사업: 건등산 중심 기념물 조성, 북한 개성과 자매결연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① 인물선양사업, ② 중요 사찰지에 대한 정비, ③ 체계적인 문화재, 산성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도 구체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강원도(2001), 제3차강원도 종합계획.

강원발전연구원(2001), 「어린이 문화산업의 개념 및 발전전략」.

김준(2002),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 「경제와 사회」, 봄호(통권 제53호).

김한배(1997),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서울: 대림문화사.

계기석·천현숙(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방안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양건열(2002),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송갑태(2001), 「향토축제와 지역활성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주시(1999), 「원주정지지구개발계획」.

유병린·황기원(1972), 「도시문화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유팔무(2000),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정체성의 문제와 전망,” 강원발전연구원·강원일보사 주최 새천년 강원학세미나 자료집.

유팔무(2000), “춘천사람의 성격과 정체성,” 춘천학세미나 발표논문.

윤형원(1999), “원주법천리 고분군 1차발굴조사,” 동원학논문집 2(12)

이대희(2001),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이선이·김병관(1996), “지역정체성의식과 생활실태,” 「수원지역의 현황과 과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오름 도서출판.

이정덕(1998), “지역축제와 지역정체성,”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서울: 셋길.

원주시(2003), 「원주시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공청회자료.

원주시(2000), 원주시사.

전상인(1998), “춘천 소프트,” 사회학회 후기 발표논문.

- 정근식(1998),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서울 : 새길.
- 정호기(1998),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문화정치: 광주전남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서울 : 새길.
- 최명희(2002), “역사적 인물을 이용한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형성전략,” 한국지역지리학 회지, 제8권 제3호.
- 최병목(1999), “인천시민의 특성별 지역정체성 비교,” 한국인구학 제22권 제1호.
- 최영주(1999), 강원도 원주 교통요지불구 큰부자가 없는 까닭, 중앙이코노미스트(6/15).
- 탁석산(2001), 「한국의 정체성」, 서울 : 책세상.
- 황기원(1995),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한국조경학회.
- 홍승직(1994), 「사회발전과 한국인의 가치문제」, 서울 : 일신사.
- A. Giddens(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 Polity ; 권기돈역 (2001),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서울 : 새물결.
- E. Relph(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 Pion Ltd.
- E. Relph(1987), The Modern Urban Landscape,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R. Ball & J. Stobart(1996), “Community Identity and the Local Government Review”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1(Spring).
-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 The. M. I. T. Press.
- W. Lim(1984), “Environmental Identity and Urbanism” , Habitat Intl., vol.8., No.3/4.